

12. 2020. 12. 12.
2020. 12. 12.
2020. 12. 12.
2020. 12. 12.
2020. 12. 12.



정소영

이달의 표지 작가



표지 작품

〈Tectonic Memories chapter III. Journey〉

슈퍼미러·자작합판·MDF·아크릴판·페인트·시멘트·진흙

140×140×140cm·40×40×40cm | 2018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파리의 국립고등미술학교를 졸업한 정소영 작가는 지난 2007년 귀국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장소특정적 설치·조각·비디오·공공적 개입 등의 활동을 통해서 공간의 정치학에 대해 질문해 왔다. 2011년 OCI 영 크리에이티브, 2016년 송은미술대상 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움직이지 않고 여행하기〉(2013, 구슬모아 당구장), 〈밤과 낮〉(2016, 아트선재 오프사이트) 등의 개인전과 〈Negotiating Borders〉(2019, 런던 주영 한국문화원) 등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2020년 금천예술공장 11기 입주작가로 선정됐다.

호주 원주민 애버리지니의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지 않는다. 이들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는 동시에 존재하며 모든 시간은 물성의 흔적으로 나타난다. 커트 보니것의 소설 〈제5도살장〉속 트랄파마도어인은 지난 경험과 앞으로 진행될 사건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나는 내가 인지할 수 없는 긴 시간을 거쳐온 물질로 둘러싸여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내가 사는 도시와 역사를 품은 지층, 땅을 가로지르는 국경, 끊임없이 유동하는 바다, 모든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주. 이 공간들을 이루는 물질들은 어떤 시간을 지나왔으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건축적 공간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작업을 시작으로 도시의 현상과 이를 지탱하는 대지의 상호성에 대해 고민했다. 이는 동시대의 표면을 갈라놓는 지정학적 경계를 깊은 지질학적 시간으로 살펴보는 시도로 발전했다. 더 넓게, 더 깊게 뻗어가는 생각의 여행은 조각 작업과 함께 장소 특정적 설치, 비디오 작업으로 매체와의 경계를 넘고 건축과 무용, 연극 등 타 분야와의 협업으로 확장됐다.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 방식은 고정되지 않은 현실의 실체를 탐구하는 나의 유동적 가치관을 대변한다.

시간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것. 조각과 설치 작업처럼 물질을 조합하는 행위는 시간 역시 변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결국 유한한 시간을 지속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에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시간의 경계가 무너지면 자유로워진다.



〈Island for women〉
아크릴판·왁스 캐스팅한 부표 | 150×150×100cm | 2018



〈Horizon & Elapsed〉
시멘트·형광등·아크릴판 | 가변 크기 | 2015



〈Island for fishermen〉
구리·발견한 부표 | 가변 크기 | 2018

CONTENTS

2020 06 VOL. 160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김종휘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전주호, 오니트(주)
각원 편집위원 김태희
사진·디자인 (재)서울문화재단, 오니트(주)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66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agazine
발행일 2020년 5월 29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01 커버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정소영

테마 토크

비극의 역사 현장을 찾아, 다크투어

06 칼럼

다크투어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

08 현장 스케치

직접 가본 서울 시내 다크투어 장소

14 리포트

서울에 있는 사회적 참사 추모 공간

사람과 사람

16 문화인

국악 명인 김덕수

22 작가의 방

김미희 작가·이상홍 배우

24 서울 찰나



26 진실 혹은 대답

코로나19, 진단과 대책 수립을 위한 온라인 긴급 토론회

이슈 & 토픽

32 쟁점 1

코로나19 문화예술 지원책의 사각지대,
아동청소년극·독립영화계

34 쟁점 2

‘구름빵 사건’을 통해 본 저작권 문제

36 화제

올해로 5년차 맞는 ACC(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브런치콘서트

공간, 공감

38 공간

서드뮤지엄(3rd Museum)

40 공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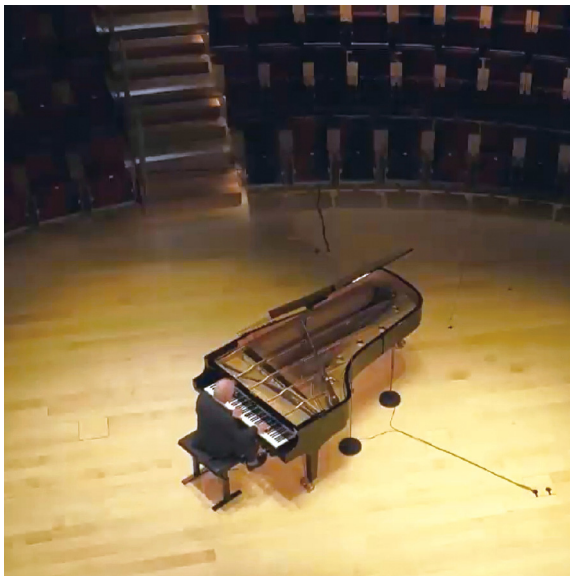
온라인 공연 <원 월드: 투게더 앳 홈(One World:
Together At Home)>과 <모멘트 뮤지컬(Moment Musical)>

42 공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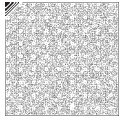
전시 <빛의 벙커: 반 고흐>와
<르네 마그리트 특별전: 인사이드 마그리트>

44 공감 3

책 <노멀 피플>과 <내 휴식과 이완의 해>



SOUL OF SEOUL



46 이경자의 서울 반세기, 공간을 더듬다^[19]

“너 자신을 알라”고는 하지 마세요

48 정지우의 썰(說)

인간의 이타심이 발하는 순간

50 서울 건축 읽기

내게로 오는 공원 ❷ 동교 어린이공원

52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신수원 감독의 <마돈나>

WEBZINE+

56 웹진 [비유]

비극과 개인

58 웹진 [연극in]

극단 52Hz

‘서치라이트 미래도시: 입정동편 <플랫폼SW3-123>’

60 웹진 [춤:in]

김지호

62 6월의 서울문화매뉴얼

68 편집 후기



역사적 비극이나 재해가 일어난 장소를 찾아
그 의미를 되새기는 여행을 '다크투어(dark tour)'라고 한다.
비극의 발자취가 남은 현장은 우리에게 묵직한 교훈을 준다.
조선의 수도로 수백 년의 시간을 보내고
일제강점기와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울은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그만큼 많은 흔적을
곳곳에 간직한 도시이기도 하다.
지난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며 일제강점기 역사의
비극이 남아 있는 곳들이 조명된 바 있다.
올해는 6·25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아직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며, 휴전이라는
긴장 상태 속에서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달려왔다.
정치·사회·문화적인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음은
물론이다. 치욕의 역사를 지우고자 애쓴 적도 있지만,
서울에는 밀든 곱든 지난 시간의 흔적을 간직해
쓰라린 이름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억하고자
노력하는 움직임도 있다.

비극의 역사 현장을 찾아,



DARK

TOUR

다크 투어

〈민주인권기념관
(옛 남영동 대공분실) 뒷편의 모습〉
사진 공간느루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다크투어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

“도시는 기억으로 살아간다”라고 시인은 읊었지만, 서울에는 읊을 기억이 별반 없다. 연식은 2000년을 넘겼으나 마일 리지는 60년에 불과한 후진국형 신생 도시로 강제 성형수술을 당했기 때문이다. 서울은 16~17세기 임진왜란과 병자 호란 양란을 겪고서 인구가 10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줄었지만, 18세기 후반 들어 30만 명이 사는 당대 세계 최대급의 도시로 회생했다. 6·25전쟁으로 도시의 4분의1이 파괴돼 폐허가 됐다가 6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초현대도시로 탈바꿈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억의 대부분이 사라졌다. 서울은 역사도시의 향기를 잃었다.

다크 투어리즘이란?

우리는 흔히 좋은 곳, 빛나는 것만 찾아다니는 ‘그랜드투어’를 즐긴다. 하지만 어두운 역사 속으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다크투어’의 울림도 만만찮다. 돌이켜 보면 인간과 자연이 남긴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을 어지간히 찾아다녔다. 필자에겐 하와이 진주만, 뉴욕 그라운드 제로, 히로시마 원폭돔, 사이판 반자이 절벽, 폼페이 화산 폭발 유적이 기억에 남으며, 국내를 꼽자면 비무장지대(DMZ)와 거제 포로수용소, 제주 4·3평화공원이 그렇다.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란 영국 글래스고 칼레도니언 대학의 말콤 폴리와 존 레넌이 1996년에 발표한 〈JFK와 다크 투어리즘(JFK and Dark Tourism)〉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다. 사람들이 저격당한 케네디 대통령을 기리고자 델러스에 방문하는 이유를 분석한 논문이다. 저자들은 2000년 이 논문을 바탕으로 《다크 투어리즘: 죽음과 재난의 매력》이라는 책을 펴냈다. 용어의 기원에서 알 수 있듯이 다크투어는 전쟁이나 학살, 자연재해 같은 역사의 어두운 현장을 찾아가는 시공간 여행이다. 굳이 우리말로 옮기자면 애도 관광이나 역사교훈 관광쯤으로 부를 수 있다. 다크투어의 유형은 전쟁, 묘지, 식민, 대학살, 감옥, 유령, 자연재해 등 7가지 테마로 분류된다. 그러나 지금은 암살, 슬럼, 유배, 순례, 표류 등으로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졌다.

용산 전쟁기념관과 대전차방호시설인 도봉산 평화문화진지, 용산 미군기지가 7가지 테마 분류법 중 ‘전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서대문형무소가 ‘감옥’에 해당한다. 국립현충원과 장충단공원, 망우리공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 절두산 순교성지 등은 ‘묘지’에 포함될 것이다.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난 경복궁 건청궁, 김구 암살의 현장인 경교장, 여운형이 암살당한 혜화동 로터리,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당한 옛 궁정동 안가 터는 ‘암살’이



라는 테마로 묶인다. 아직도 서대문독립공원 등 청산되지 않은 일제 잔재가 숨어 있다. 군사독재와 민주화 과정의 비극적 장소로는 남산 옛 중앙정보부 터와 남영동 대공분실이 대표적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도 인간이 낳은 자연재해, 즉 인재의 현장에 속한다.

서울, 가슴 아픈 기억의 도시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서울은 가히 다크투어의 도시라고 할 만하다. 서울에는 근현대사의 비극적 상황이 압축적이고 집중적으로 새겨져 있으며 비극의 흉터가 부지기수다. 가깝게는 개항기의 혼돈과 식민지, 전쟁과 분단의 참극 그리고 산업화의 상처가 남아 있으며, 또 건축물로, 터와 표식으로 층층이 얼룩져 있다. 도시 전체를 다크투어의 대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중 서울의 양대 랜드마크인 '경복궁과 남산' 일대는 서울 최대의 다크투어 코스다. 조선의 태조는 경복궁을 창건하고, 정문인 광화문과 동·서십자각을 세워 대궐을 완성했다. 이후 서울의 법궁인 경복궁을 비롯한 5대 궁은 식민지 수난사로 얼룩졌다. 역사소설이나 사극에 등장하는 구중궁궐은 1923년 서십자각의 철거와 함께 역사소설 속으로 사라졌다. 일제강점기, 구중궁궐인 경복궁 해체는 수순에 따라 진행됐다.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를 연하면서 광화문과 근정전 사이 홍례문을 헐어낸 뒤 전시관을 짓고, 잔디를 깔았다. 각종 명목으로 모두 6차례의 엑스포가 경복궁에서 열렸다. 경복궁 전각과 문, 누정이 철거된 뒤 경매를 통해 요정과 별장으로 팔려나갔다. 500개 동이 넘던 경복궁 전각의 90% 이상이 사라졌다. 1927년 조선총독부 건물이 완공되자 총독부를 가린다고 광화문을 지금의 건춘문 자리로 쫓아냈다. 경복궁 안은 엑스포장을 꾸민다면서 헐고, 경복궁 밖은 전차 선로를 놓는다면서 뭉갸다. 이때 광화문의 월대, 궁궐 담장, 서십자각, 영추문, 해태상이 뜯겨 나가거나 붕괴되거나 옮겨지거나 사라졌다. 사대문 중 숭례문(남대문)과 홍인지문(동대문)의 성곽은 전차가 다니기 비좁다면서 헐어냈고, 돈의문(서대문)은 아예 없었다.

남산길은 나라 잃은 부끄러움과 인권유린의 기억이 겹겹이 버물린 영욕의 다크투어 장소다. 남산골한옥마을(옛 청학동, 조선헌병대사령부)~서울소방재난본부(중앙정보부 유치장)~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옛 녹천정, 통감관저·총독관저)~문학의 집(중앙정보부장 공관)~서울유스호스텔(중앙정보부 남산본관)~서울애니메이션센터(통감부·총독부)~남산원(노기신사)~한양공원비(왜성대공원)~백범광장(조선신궁)~안중근의사기념관(조선신궁)까지 이어진다. 식민 지배의 상처를 씻어내지 못한 채 광복과 6·25전쟁 그리고 분단, 산업화 과정에서 거듭 훼손된 남산은 흉터투성이다. 경성호국신사(용산동 2가) 자리에 해방촌이 들어섰고, 적산 처리 과정에서 동국대, 서울중앙방송국, 숭의학원, 미군 통신부대, 외인주택 등 각종 정부기관과 학교, 군 및 종교단체가 파고들어 잠식당했다. 동상과 기념물, 터널과 남산타워는 남북 체제 경쟁과 정치 이데올로기의 상징물이다.

남산 옛 조선통감 관저 터에 '위안부 기억의 터'가 조성돼 있다. 한일병탄조약이 체결된 치욕의 통감관저 터에 <대지의 눈> <세상의 배꼽> (임옥상 화백의 작품)을 세웠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이 아픈 역사가 잊히는 것이다"라는 어느 위안부 할머니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는 또 이렇게 적혀 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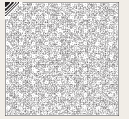
이젠 드러내야 한다. 우리도 본격적인 다크투어에 나설 때가 됐다. 망각하지 않을 심산이라면 '국치 투어'라고 이름 붙여도 무방할 듯하다. 바야흐로 다크투어의 시간이다.

글 노주석_서울도시문화연구원장



기억하려는 서울, 잊으려는 서울

직접 가본 서울 시내 다크투어 장소



용산 전쟁기념관에서부터 미아리고개까지, 또 어떤 날은 남산 예정동 자락과 남영동, 서대문독립공원을 걸어왔다. 이전과는 결코 똑같아 보일 수 없는 서울. 서울은 아직도 '기억하려는 자들'과 '잊으려는 자들' 사이 어디쯤 있는 듯했다.

용산을 중심으로 한 다크투어

서울에서 70년 전 그날을 목격하다

높게 솟은 탑과 비장한 표정의 군인 동상, 유엔 참전용사 기념비, 필력이는 국기들.... 서울 한복판에 '전쟁'을 주제로 하는 기념관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전쟁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다. 터벅터벅 전시실 본관을 향해 가다 보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라는 말이 새겨져 있는 '평화광장'을 지나가게 된다.

어머님! 피뢰군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라고 했다. '어느 학도병의 편지'란 이름으로 전시실 한쪽 벽면에 새겨진 그 글은, 어떤 무기나 탱크보다도 더더욱 무겁게 다가왔다. 군복 대신 교복을 입은 앳된 그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달려 나가, 부지기수로 죽었다는 사실은 아직도 믿기 어렵다.

전쟁기념관을 나와 남영역 쪽으로 걷다 보면 파란 간판에 'USO'라고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용산 미군기지 메인포스트 맞은편에 위치한 17번 게이트, 캠프 킴(Camp Kim) 부지 내에 노르스름한 색의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은 미군에게 복지오락 서비스를 제공했던 미군 부대 내 공간, USO(미군위문협회) 건물이다.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비어버린 이 공간은 2008년 '용산공원갤러리'라는 이름의 용산공원 시민소통 공간이 됐다. 114년간 국민에게 금단의 땅이었던 용산기지 건물이 지난 2018년 민간에게도 개방된 것이다.

혜화동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바빠 걸음을 옮겼다. 서울대병원 후문을 들어서면, '이름 모를 자유전사비'라는 이름의 위령탑이 있다. 하얀색의 탑에 금색으로 '현충탑'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나무와 잔디밭으로 조그마한 정원같이 꾸며진 이곳 안내판엔, 1950년 6월 28일 이곳에 북한군이 병원에 난입해 입원한 국군 부상 장병들을 밖으로 끌어내 잔혹하게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한 환자 등 900여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겨레여, 다시는 이 땅에 그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라"라는 말이 당부 같다.*

미아리고개 정상에 위치한 미아리예술극장(구 아리랑아트홀) 뒤편에는 <단장의 미아리고개> 노래비가 설치돼 있고, '미아리 눈물고개'로 시작되는 노랫말이 적혀 있다. 이곳은 6·25전쟁 당시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자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남한의 주요 인사들을 북으로 끌고갈 때 거쳐간 길목이었다고 한다. 북한군에 납치당해 생이별하는 이들의 고통을 '단장(창자가 끊어지는)'에 빗냈다. 지금, 이곳을 뽕뽕 지나 는 차들이 야속할 정도다.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 서울은 전쟁을 목격한 채 아직도 신음하고 있었다.

* 서울대병원 외에도, 당시 고양군 흥제리(지금의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주둔해 있던 영국군 29여단 캠프 근처에서 일어났던 학살 사건 또한 6·25전쟁 중 일어났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이다.



전쟁기념관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화번호 02-709-3081

누리집 www.warmemo.or.kr

남영동과 남산 다크투어 검은 건물이 숨기고 있던 역사의 민낯

나는 그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분실'에 씩씩하게도 들어섰다. 그야말로 "남영동 무서운줄 모르고."(영화 <1987> 중) 옛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 위치한 한 카페에 점심시간을 맞은 회사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회색 담벼락 넘어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듣고 나온 나는 그 이질감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한동안 멎었다.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2022년 정식 개관 예정)의 해설사는 서울에는 '보안분실'(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보안수사대가 사용한 별관)이라고 불리는 곳이 여러 곳이라고 했다. 군사정권 시절, '대공분실'로 불리기도 한 보안분실은 홍제동·옥인동·서빙고 등지에 있었다. 해설을 하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중심으로 한 영화 <1987>의 장면들을 때때로 인용하기도 했다. 익히 알고 있었듯, 검은색에 가까운 벽돌 건물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곳은 고문이 자행된 조사실이 있는 5층이다.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 군은 이

곳에서 고문을 받다 숨졌고 그 이전에 정치인 김근태(1947~2011)는 이곳에서 민청학련 사건으로 23일간이나 이근안에게 고문을 받았다. 5층의 창문 모양은 겉으로 봐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폭은 좁고 위아래로 길었다. 혹시라도 투신할 것을 대비해 머리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만들었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서는 모르도록 작게 설계했다고 했다. 1층에는 테니스장이 있었다. 그 테니스장에서는 수사관들이 테니스를 치며 체력 단련을 했다.

층수 표시가 아예 없는 엘리베이터, 1층부터 5층까지 뱅글뱅글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 똑같이 생긴 철문들이 주욱 늘어난 감옥과도 같은 복도, 앞에 누가 있는지 모르게 지그재그로 배치됐고, 층수를 알지 못하게 1·2·3의 숫자로만 구별해 놓은 조사실, 밖에서만 조절할 수 있게 해놓은 전기 장치, 밖에서만 열 수 있게 해놓은 문, 밖에서만 안을 볼 수 있게 한 작은 구멍, 자해하지 못하게 철망을 쳐놓은 형광등... '가해자 중심' '반인권'의 극치였다.

층무로역 5번 출구로 나와 걷다 보면 보도블록에 노란색 나비 모양의 스티커가 드문드문 붙어 있다. '기억의 터'로 가는 길이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고,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조성한 공간인데, 또 다른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바로 옛 통감부 터로,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체결된 곳이다. 또한 이 길은 옛 중앙정보부 본부 건물이던 '서울유스호스텔'로 가는 길이다.

지하 1층, 지상 6층의 멀끔하게 생긴 서울유스호스텔은 1973 서울대 최종길 교수가 고문을 받던 중 사망했으나 투신자살한 것으로 조작된 곳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민청학련·인혁당 등 각종 사건의 당사자들이 고문을 받던 곳이라는 사실에 공포감을 느낀 것도 잠깐, 너무나도 멀끔한 그 건물은 태연해 보이기가까지 했다. 건물 입구에는 '옛 중앙정보부 본관'이라는 안내판이 서 있었다. 사실 그 안내판이 아니고서는 서울유스호스텔에서는 옛날의 흔적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5층 조사실의 복도. 좌우 양쪽으로 16개의 조사실이 배치돼 있다.



1976년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남영동 대공분실이 1983년 7층으로 증축한 형태로 남아 있다.

그 옆에 있는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중앙정보부 제6별관이었던 곳. ‘지하벙커’ ‘지하고문실’로 불리면서 많은 언론인이 끌려와 취조를 받았던 곳이라고 한다. 또한 현재는 공연을 위한 넓은 연습 공간으로 사용되는 ‘남산창작센터’는 당시 요원들의 체육관이었다고.

남산창작센터 앞 골길을 하나 통과하면 서울특별시청 남산별관 쪽으로 나갈 수 있다. 이 골길의 이름은 ‘소릿길’이다. 소릿길에 대한 짧은 설명이 적혀 있는 안내판을 읽고는 골길 입구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눌러봤다. 기분 나쁜 소리가 지지직 들려온 후 타자기 소리, 또각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이런저런 상념에 빠져 골길을 거의 빠져나올 무렵 눈앞에 회색 건물이 하나 등장한다. 바로 서울특별시청 남산별관, 옛 중앙정보부 제5별관이다.

이 소릿길을 통과해 끌려오던 많은 노동운동가, 민주화운동가, 간첩 혐의를 받던 이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남산

별관을 보자 내게도 섬뜩하게 전달되는 것 같았다. 그 회색 건물에 이상한 위압감을 느끼며 건물을 크게 한 바퀴 둘러보았다. 남산1호터널로 많은 차가 지나고, 서울시내의 주요 은행, 대기업, 특급호텔이 보인다. 남산둘레길로 이어지는 뒤편 길에는 낮시간인데도 많은 시민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둘레길을 조금 걷다가, ‘기억의 터’ 쪽으로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는 길은 꽤나 멀게 느껴졌는데, 잘 조성된 나무 계단으로 내려오는 길은 편스레 짧게 느껴졌다. 고통의 시간은 너무나도 길었는데, 망각의 시간은 너무나 짧다.

글 전은정_객원 기자 사진 공간느루



민주인권기념관(임시 운영 중, 2022년 정식 개관 예정)

주소 용산구 한강대로71길 37

전화번호 02-6918-0102~8

누리집 www.dhrm.or.kr

서대문독립공원 다크투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추모하다

서대문구 현저동에 위치한 '서대문독립공원'은 가히 근 현대사의 산 교육장이라 할만하다. 비극의 흉터와 함께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 박물관으로 운영되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할 수 있는 '독립문' '서재필 선생 동상' '3·1독립선언기념탑' '독립관' '순국선열추념탑' 같은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크투어는 '잔혹한 참상이 벌어진 역사적 장소나 재난·재해 현장을 돌아보는 여행'이다. 힐링과 휴식을 추구하는 일반 여행과 달리 반성과 교훈의 시간을 갖는 게 여행의 목적이다. 국립국어원이 다크투어를 '역사교훈여행'으로 우리말 다듬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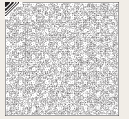
까 싶다.

서대문독립공원을 가던 날은 억수가 쏟아졌다. 독립문 역으로 가는 3호선 지하철 안에서 짓궂은 날씨를 원망했지만, 한편으론 웬지 오늘 같은 날이 다크투어하기 좋은 날이란 생각도 했다. 처음에는 영상과 사진 자료를 통해 얻는 정보가 직접 가서 얻는 정보와 다를 바 없으니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글을 쓰는 게 부담으로 다가와 나가 보기로 했다. 덕분에 공간의 전모를 몸으로도 느껴볼 수 있었다.

장대비를 뚫고 붉은 벽돌로 지어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도착했을 땐 몸의 반절이 비에 젖은 상태였다. 우산이 짐처럼 느껴졌고 빗물에 신발이 젖어 양말에 물기가 스며드니 찝찝함은 배가됐다. 당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관 중이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5월 12일 개관 예정이었지만 다시 연기된 것이다. 시기 상조라 판단한 모양이다. 100여 년 전에는 한번 들어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던 곳이 지금은 들어가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공간이 됐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이 살아 있다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다. 찻집함이 배가된 건 젖은 몸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선 기획전시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던 독립운동가 중 후손을 찾지 못한 독립운동가 27명을 소개하는 〈잊혀진 독립영웅의 후손을 찾습니다〉와 총 16명의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형무소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는 상설전시로 진행되니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감상할 수 있다. 관람은 잠정 휴관이 끝나야 가능하다.

추모의 공간

서대문독립공원에는 역사의 아픔과 상흔을 간직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외에도 항일투사와 애국지사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건축물들이 있다. 공원 초입에 우뚝 서 있는 ‘독립문’은 1896년에 세워진 석조문으로 프랑스 개신문을 닮아 있다.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사대 외교의 표상인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세웠다. 현판석 앞과 뒤에 한글과 한자로 독립문이라 쓰여 있고 그 위에는 태극기가 조각돼 있다. 독립문 건립은 대한제국 당시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서재필 선생 동상’도 있다. 하늘 높이 쳐든 손끝에는 그가 창간한 《독립신문》이 들려 있다. 서재필은 독립협회를 조직했고, 독립문 건립에도 크게 공헌한 인물이다. 이 밖에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항일투사들과 애국지사들의 원혼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순국선열추념탑’, 3·1 독립선언문과 손병희 등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이 새겨진 ‘3·1독립선언기념탑’이 있으며,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옛 모화관 건물을 개축해 독립협회회관으로 사용한 ‘독립관’이 있다. 현재는 순국선열들의 위패를 봉안한 추모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항일투사와 애국지사를 추모하는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마음속



독립문

에 아로새기니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에서 느낀 찻집함이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아픔이 얼마나 될지 헤아려본 적은 없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난 가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물론 기억해야 할 것이 많다고 기억된 것들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아픈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다크투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5월은 비가 많이 왔다. 6월도 5월 못지않게 비 소식이 잦을 것 같다.

글 전주호_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주소 서대문구 통일로 251

전화번호 02-360-8590

누리집 sphh.sscmc.or.kr

더 가까워야 잘 기억할 텐데

서울에 있는 사회적 참사 추모 공간

다크투어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여행이다. 그 장소가, 객관화하기 어려울 만큼 가까운 시점의 사건과 관련 있다면 마음의 무게는 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돌아보고 기억해야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 이면에 쌓인 부정부패와 부실의 결과로 여러 차례 사회적 참사를 겪었다. 안타깝게도 참사와 관련한 장소는 보존돼 있지 않다. 무너진 다리는 이어졌고, 붕괴된 건물 터에는 새 건물이 들어섰으며, 사람과 장소를 모두 집어삼킨 화재 현장은 곧 잊혔다. 대신 서울 곳곳에는 사고와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들이 있다. 찾아가기 쉽지 않지만 관심 가져야 할 곳들이다.

다리는 말이 없고 추모비는 멀리 있고

| 성수대교 사고 희생자 위령비

스마트폰 지도 앱에서 ‘성수대교 사고 희생자 위령비’를 검색했다. 대중교통 경로 안내를 따라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에서 내려 서울숲 산책로를 20분쯤 걸었다. 그러나 강변북로에 인접한 수도박물관까지 안내된 후 경로는 없었다. 내친김에 조금 더 걸어 서울숲 한강 전망대에 오르니 멀리 성수대교가, 그리고 인근 강변북로 오른쪽에 파란 안내판이 보인다. ‘성수대교 사고희생자 위령비(주차장)’. 위령비가 있는 곳까지 도보로 접근은 거의 불가능하며 자동차를 이용해야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인근 학교 학생 8명을 비롯해 32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개발 광풍 속에 예견된 재난이 대도시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남겼다. 성수대교 희생자 위령비에는 무학여고 교사로 재직하던 변세화 시인의 추모 시가 적혀 있다. “...이 증언의 강 언덕에 오늘 부끄러이 조출한 돌 하나 세워 비오니 님들의 크신 희생 오랜 날 깨우침 되오리니...” 가까이서 깨우치고 추모하기엔 진입장벽이 높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참사라는 점에서 이러한 추모 환경의 변화가 진행될지까지 함께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주소 성동구 성수동1가 694-82 (도보 진입로 없음)

최악의 참사, 가장 조용한 위치의 위령탑

| 삼풍참사 위령탑

양재시민의숲은 추모 공간을 여럿 둔 공원이다. 매한 윤봉길 의사 기념관과 동상, 유격백마부대충훈탑, KAL 858기 실종 사고의 희생자 추모를 위해 마련된 KAL 위령탑이 공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공원의 남쪽 맨끝에 삼풍참사 위령탑이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한국에서 ‘6·25전쟁 이후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사건’으로 기록된 참사다. 소유주의 부정부패와 건설사의 부실 시공으로 500여 명의 희생자와 9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25년이 지난 지금도 사고를 겪은 많은 이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서 떨지 않다. 삼풍백화점 사고 현장(서초구 서초4동 1675-3번지)에는 2004년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섰다. 삼풍참사



- 1 강변북로 복단 서울숲 인근에 자리한 성수대교 사고 희생자 위령비
2 양재시민의숲 남쪽 끝자락에 마련된 삼풍참사 위령탑
3 마천동 송파안전체험교육관 내 추모의광장에 있는 씨랜드 화재 희생 어린이 추모비

의 상징성에 비해 그 흔적이 말끔히 사라진 점은 비극을 외면한 채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나아가길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와도 관련 있다. 위령비 뒤편으로 작은 비석에 적힌 ‘위령탑 세움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 땅 위에 그런 가슴 아픈 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고자...” 추모의 시간과 공간이 너그려이 주어지지 않는 땅에서 “그런 가슴 아픈 탈”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주소 서초구 양재2동 양재시민의숲 제1지구 내

기억할 공간을 가까이, 오지 않은 불행은 멀리

| 화성 씨랜드 화재 희생 어린이 추모비

씨랜드 화재 사건은 청소년 수련시설로 운영되던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의 집’에서 1999년 6월 30일 대형 화재로 유치원생 19명을 포함, 2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다. 수련원의 불법 건축과 운영이 원인이었고, 다수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사회적인 파장이 컸다. 사고 현장은 화성시이지만 화재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 19명 중 18명이 서울 송파구에 거주했기에 이를 고려해 추모비는 서울 송파구에 세워졌다. 다만 앞서 소개한 위령비들이 공원 등 개방형 공간에 위치한 것과 달리, 씨랜드 화재 희생 어린이 추모비는 마천동 송파안전체험교육관 내에 있어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 그나마 추모비가 마련돼 해마다 유족들은 이곳에서 추모식을 열지만, 정작 화성의 씨랜드 참사 현장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씨랜드 추모비에도 반성의 문구는 적혀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치유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이 밝고 건강하게 우리 새싹들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없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불행을 돌아볼 공간’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

주소 송파구 성내천로 35길 53 추모의광장

문의 송파안전체험교육관 02-406-5868 | isafeschool.com

글 이아림 객원 기자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국일보

장구쟁이의 신명으로,

장구재비의 경륜으로

국악 명인 김덕수

중요한 업적을 남긴 명인·명장의 생애는 종종 그가 몸담은 분야의 역사와 포개지곤 한다.
한국 전통음악, 그중에서도 타악의 현대사 일부는 아마 이 사람의 인생과 포개질 듯하다.
예순아홉 인생 중 65년을 국악 장단과 함께한 김덕수. 남사당패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무대의 신명과 환희를 처음 맛보고 이후 몸과 마음, 삶 구석구석을 음악으로 채운 그는
세계 무대에서 전설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렸다.
드라마에 비할 바 없는 그의 음악 인생이 지난 5월 말 음악극 〈김덕수전傳〉으로 무대에 올랐다.
두 시간의 극에 푹꼭 놀러담고도 여전히 넘치는 그의 음악 인생은 아직 갈증이 가시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다. 특별한 공연을 앞두고 바쁜 5월을 보내던 김덕수 명인을 만나
그의 65년 음악 인생에 대해 먼저 입담을 청해 들어보았다.



5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소나기가 무섭게 쏟아졌다. 근처 카페에서 세종문화회관까지 3~4분간 걸었을 뿐인데 접이식 우산이 물기를 머금어 묵직해졌다. 우산을 탈탈 털고 들어선 세종문화회관 사무실에서 평생 폭우를 제조해 온 이가 필자를 반갑게 맞았다.

김덕수 씨. 사물놀이에서 팽과리가 천둥이라면 장구는 비를 맡는다. 투두둑, 투두둑 쏟아지는 비처럼 쉴 새 없이 후려치며 장단을 쏟아낸다. 김 씨는 올해 우리 나이로 예순아홉이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 특히나 거침없는 입담이 그를 더 뜨겁게 만든다.

“젊었을 때는 진짜 근육 파워로 (연주를) 했어요. 내가 차범근 씨보다 근육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지금은 그 나이를 지나왔잖아요.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이 그렇듯 저도 이제는 호흡을 이용해 좀 더 편안한 자세로 연주하게 됐지요. 근육도 필요없는 것들은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둥글둥글 부드러워졌고요.”

단신에 단단한 체구. 사각형 얼굴에 위로 올려붙인 머리칼. 이 사람은 지금 거의 레고 블록 같아 보인다. 음악극〈김덕수전傳〉(5월 28~31일,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은 바로 그의 인생을 다룬 무대였다. 사물놀이 창시자로 알려진 그의 생은 드라마, 그 자체였다. 극(劇)적이었고 영화 같았지만 전기(傳記)나 전기(傳奇)로 다룬다 해도 손색없다.

한국의 장단으로 세계 무대를 호령하기까지

“첫 무대. 그 환희적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없었을 겁니다.” 김 씨가 겨우 다섯 살 때였다. 남사당패였던 아버지 손에 이끌려 새미(어른 어깨 위에서 춤추는 무동)로 처음 청중 앞에 선 것이. “(충남) 조치원 난장이었죠. 어른 어깨 위에서 재주 펴는 것은 다섯 살짜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었어요. 어른 세 명 위, 그러니까 거의 건물 4층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천하가 다 내 아래 있는 느낌이었죠. 그때의 감각이 지금도 아롱아롱하네요. 내 청춘, 내 시간... 바로 (무대에 오르는) 그 순간을 위해 지금껏 바친 셈입니다.”

김 씨는 장렬한 첫 경험 이후로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더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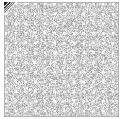


고 했다.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하는 연주자의 울림과 환희. 그는 “연주하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사는 것”이라고 했다. 남사당은 김 씨 예술의 근간이 됐다. 인형극, 줄타기, 땅재주, 탈춤, 풍물... 전통문화의 맥이 끊기기 직전, 마지막까지 우리 백성들과 애환과 한, 기쁨을 함께한 것이 남사당이라고 그는 믿는다. “그 레퍼토리 자체가 내게는 평생의 영양소가 됐다”고 털어놓는다.

남사당패의 일원으로 갖은 재주를 부리며 사랑을 받던 그는 중학교에 입학하며 신명의 세계를 열어준 아버지와 이별한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남사당놀이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공연이 부자가 함께한 마지막 무대였다. 서울의 국악예술학교(현재의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6년간 국악 전반을 배우고 익혔다. 그러나 그의 교실은 학교 안에만 있지 않았다. 세계가 그의 교정이요, 교실이 됐다.

“중학교 1학년이던 1965년, 문화예술단의 일원으로 전 일본 투어를 한 게 시작이었어요. 도쿄·나고야·오사카·후쿠오카·홋카이도까지 민단 조직이 있는 곳은 다 찾아갔습니다. 공연의 1부는 국악, 2부는 가요로 꾸며졌죠. 그래서 고복수·황금심·김정구·고운봉·장세정 같은 어른들과 함께 다녔어요. 나중에는 위키리·남일해·남상규·오기택·이미자·박재란 같은 분들과도 다녔죠. 매년 갈 때마다 조금씩 출연진이 바뀌었거든요.”

1968년부터는 리틀엔젤스예술단과 함께 월드투어를 다녔다. 국악의 현대화에 대한 의지와 감각을, 김 씨는 그렇게 자연스럽



게 머리가 아닌 몸과 마음으로 체득해 갔다.

“에드 설리번과 새미 데이비스 주니어가 진행하는 쇼에 출연했죠.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인기 피아니스트 리버라치의 힐튼 호텔 쇼에 오프닝 게스트로 서서 공연했구요. 우리 다음 쇼가 엘비스 프레슬리였는데, 당연히 프레슬리 옆에서 밥도 먹고 연습하는 광경도 다 지켜봤죠.”

어린 나이였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쇼 프로모터들이 어떤 공연을 원하는지, 다양한 관객의 혼을 어떤 것이 쏙 빼놓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고찰했다. 전통의 본질과 가치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우리 문화만이 가진 매력을 세계 대중에게 어떻게 호소할까 고민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든 천체학에서 출발합니다. 하늘·땅·사람에 관한 원리.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가 있죠. 한국어의 구조·억양·어법과 가장 흡사한 것이 우리의 장단입니다. 어느 나라 음악이든 리듬이야말로 그 민족의 근본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아요. 그것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느냐가 ‘답’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브라질 축구를 그냥 브라질 축구라고 안 하고 왜 ‘삼바 축구’라고 할까요. 모든 것은 리듬입니다.”

1978년 사물놀이를 시작했다. 2~3년간 옷다리 풍물의 가락을 음악적으로 긴장감 있게 구성해 갔다. 함께 실험할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풀어낼 공간이 있었다. 1970년 오사카 엑스포를 인연으로 만난 건축가 김수근 선생이 ‘공간 사랑’을 선선히 내준 덕이다. 서서 휘몰아치던 것을 들어앉아 양껏 두드리니 기존의 서구식 공연에 익숙한 이들까지 혼이 나가듯 사물놀이에 빨려 들었다. 광복 이후 정악과 아악에 치여 무시당하던 민속악, 타악이 다시 조명을 받게 됐다. 노동요·군악으로 우리 삶에 밀접하게 자리했던 그 장단들이 도깨비 떼처럼 다시 쏟아져 나와 세상을 호령하기 시작했다.

“덩실대는 신명, 그것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일으킨 파란은 해외까지 큰 물결이 돼 이어졌다. 1983년, 워너뮤직 산하의 유명 레이블 ‘논서치’에서 사물놀이의 사실상 첫 녹음물인 〈Drums and Voices of Korea〉 앨범이 나왔다. 1993년에는 독일의 세계적 음반사 ECM이 사물놀이와 오스트리아 그룹 ‘레드선’의 합작 음반을 제작해 내놨다.

“우리 장단을 치면 신기하게 흑인도 백인도 다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덩실대는 신명이 우리 신명인 셈이죠. 그것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마따나 “쟁이는 쟁이를 알아준다.”

“음악가들끼리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상대가 갖고 있을 때 손 내밀고 악수하는 것입니다. 장르는 필요 없죠. 한 아티스트만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에너지, 그것을 느꼈을 때 상대가 누구든 ‘쿨’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고 받기가 이뤄집니다. 우리 장단의 신명과 맛을 그 친구가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언젠가 어떤 음악에서 표출하겠지요.”

1987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축제 ‘라이브 언더 더 스카이’는 재즈의 전설들이 모인 자리였다. 당시 김덕수 사물놀이는 마일스 데이비스·웨인 쇼터·잭 디조넷 같은 거장들과 같은 무대에 섰다. 올림픽을 비롯한 세계적 행사에 술하게 출연한 김 씨 자신도 “지금도 생각하면 꿈같다”고 술회하는 공연이다. 2010년 스티비 원더 내한 공연 찬조출연도 잊지 못할 쇼.

“공연이 끝난 뒤 스티비 원더가 제 분장실로 찾아왔어요.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와서는 한 30분 동안 같이 놀았죠. 즉흥 음악으로요. 입으로 외치고 손으로 잡히는 대로 때리면서요. 그걸 누가 말려요?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건데.”

재즈는 사물놀이에 끝없이 구애의 메시지를 보냈다. 힙합·록과도 그는 수시로 놀았다. 몇 년 전부터는 헤비메탈 밴드와 결합한 ‘일렉트릭 사물놀이’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우리 세대가 록 세대”라고 잘라 말했다.

“젊은 시절, 아침에 일어나면 록음악부터 틀었죠. 엘비스 프레슬리·지미 헨드릭스·핑크 플로이드·밥 딜런…. 그런 세계의 조류와 함께 숨 쉬면서 세계의 감각이 시나브로 몸에 뻗을 것입니다.”

김 씨는 사물놀이가 여러 장르와 두루 화합할 수 있는 비결을 자

“타악부터 가르쳤으면 해요.
세마치 장단을 ‘덩덩따궁따’의 글자로만 말고,
노래로 춤으로 즐겁게 가르쳐야 합니다.”

신의 재주보다 우리 장단이 품은 원초적 개성과 매력으로 본다.
“제가 모든 장르와 작업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장단의 신명이
독특하며 우리만 가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수백 종의 전통
리듬 패턴이 있어요. 한글이 포용력이 강하다고 하듯, 우리 장
단은 비트에 메트로놈을 갖다놓고 맞추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프레이즈가 길고, 혼합박이죠. 장단인데 선율 같기도 하고요.
서양이라면 3박과 2박이 결합하면 머리가 돌인 셈이지만, 우리
는 5박 전체가 하나의 머리와 꼬리를 갖죠. 극적인 기승전결이
한 프레이즈 안에 90% 이상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 대단하죠.”

국악 교육과 레퍼토리 개발이라는 과제

사물놀이를 들고 오대양 육대주를 누볐지만 그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국악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향해 갈 길이 굽이굽이 멀다
고 본다. 첫째도, 둘째도 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우선, 국내 유·초등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국악기가 단소죠? 소리 내다가 끝납니다.
그러지 말고 타악부터 가르쳤으면 해요. 세마치 장단을 ‘덩덩
따궁따’의 글자로만 말고, 노래로 춤으로 즐겁게 가르쳐야 합니
다.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에게 전통적 유아교육학이 있었
겠죠. 끊어진 그 맥을 한번 다시 살려봐야 합니다.”

국악의 해외 보급 역시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그는 믿는다. 세계의 음악학 논문은 물론 교과서에도 국악이 실
려야 하는 시점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사물놀이 창단이 10년
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영국의 일반 음대에서 사물놀이 강의
를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의미심장하게 본다.

“백번 이야기하지만 교육입니다. 한국이 살길은 그것입니다.
저들이 갖지 않은 팽파리·징·장구·북만 그곳 교실에 들어간다

면 우리 청년들도 들어가게 되고 자연스레 가무악을 함께 가르
치게 돼 있어요. 우리만이 가진 혼드는 맛과 멋이 있어요. 현악
기는 농현을 하죠. 그들이 고저장단의 특성을 이해하면 우리의
종합예술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 단계를 지나면 현지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요. 앞으로는 한국 음악의
특이한 맛을 어떻게 세계인들이 즐겁게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해야 합니다.”

1998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과 교수로 교편을 잡은 김 씨는
2018년 퇴임할 때까지 20년간 후학을 길렀다. 그 뒤에는 한국
전통 장단을 집대성한 교재를 집필하고 있다. 해외의 음악 전공
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숙제다.
환희의 폭풍 속에 살아온 것 같지만, 어디에도 완벽하게 행복
한 인생이란 없는 법이다. <김덕수전傳>에서 김 씨는 그 그들도
보여주고자 했다. 가장 깊은 계곡은 그의 지음(知音), 김용배
(1952~1986)에 얹혀 있다. 죽마고우이자 사물놀이의 상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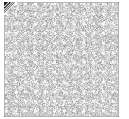
“김용배 군은 저와 그야말로 실과 바늘 같은 사이였죠. 저와 모
든 음악적 성향이 같았기에 아이 때부터 매일 음악 얘기를 하며
죽자사자 붙어 다녔거든요. 그가 국립국악원으로 옮겼을 때 제
겐 분노와 배신감이 컸어요. 그가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된 뒤 밀려
온 자책과 후회 등은 아직도 생각조차 하기 싫을 정도예요.”

김 씨의 눈가가 두 번째로 젖어들었다. 앞서 다섯 살 때 새미로
서 세상을 바라본 기억에서 나온 것이 기쁨의 진액이었다면, 이
번 것은 그 성분이 조금 다른 듯했다.

65년 음악인생의 안팎과 음지, 양지를 넘나드는 음악극 <김덕
수전傳>은 김덕수 자신에게도 꽤나 큰 도전이다. “하루하루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기분으로” 해왔지만 그 모든 시간을 이
제 와 하나의 공간 안에 두 시간 동안 갈무리해 돌아보는 작업
은 쉽지 않다.

“국악예술학교에서 관악을 전공하던 장면, 독백하며 춤으로 스
토리를 풀어내야 하는 장면, 처음 사물놀이를 만들어내던 장
면… 그때 그 시절을 돌이켜 생각하며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연주와 몸짓을 최선을 다해 제대로 재현하려고 하니 상당히 힘
이 듭니다.”

김 씨는 그래도 어느새 밝은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내년이면 제가 칠순인데, 옛날 같으면 고려장하고 뼈조차 없어졌을지도 모르잖아요. 이제는 뭐가 올지 모르죠. 늘 질문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숙제는 저의 뜻만이 아니고 조상님과 하느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에겐 아직 굳센 경륜과 호흡이 있다. 단전호흡을 하듯 정중동, 동중정의 파워를 뿜어내는 게 그의 비법이다. 하지만 그에게도 언젠가 내리막길은 올 것이다. 노가수가 언젠가 무대에서 내려오듯, ‘장구재비’도 어느 날에는 채를 그만 내려놔야 할 것이다.

“가수들은 음정이 떨어진다면 타악도 비슷합니다. 득음, 즉 가진 것을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는 것이 더는 안 된다면 그만 해야겠죠.”

교육 못잖게 그가 붙들고 있는 화두는 레퍼토리의 개발, 그리고 난장의 브랜드화다. 재즈 거장들이 자신이 지은 테마를 ‘스탠

더드’로 만들어 몇 세대고 후세에 전파하며 끝없는 즉흥 연주의 물꼬를 터내듯이, 국악에서도 그런 레퍼토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난장은 그가 오래전 대학로에서 ‘난장뮤직’을 운영할 때도 이미 염두에 둔 개념이다.

“난장이란 어마어마한 철학입니다. 이걸 제가 끝까지 갖고 갑니다. 한마디로 혼돈과 질서가 공존하는 장이죠.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 같은 제의를 비롯해 소도 시대까지도 연결된 개념입니다. 현대로 오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변화하면서 빠르게 사라져갔죠. 난장의 공간이던 동네에는 젊은이들이 사라졌죠. 젊은이들의 가치관마저 달라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을 가질 만한 것이 다시 동네마다 되 살아났으면 합니다.”

글 임희운 《동아일보》 기자 사진 공간느루

사별 뒤 얘기 잔잔히~



“삶과 죽음의 손을 잡고.”

남편과 사별 이후 가슴속에 숨겨왔던 응어리를 털어낸 에세이 《문 뒤에서 울고 있는 나에 게》(김미희 작) 표지를 넘기자 검은 펜으로 눌러쓴 문구가 눈에 띈다. 전문 작가에게서 풍기는 기교가 아니라 친구에게 털어놓은 고백처럼 이 책은 읽는 이의 가슴 한편을 울린다. 이 책은 2년 전, 암으로 떠나보낸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작한다. 15년 가까이 함께했던 남편의 마지막 투병 생활은 그가 겪었던 고통의 매 순간을 지금도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착각을 자아낸다. “그날 이런 일이 있었지...” 부부가 나눈 대화처럼 과거의 기억을 읊미하는 여러 에피소드가 이어진다.

작가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여섯 살 난 아들을 키워야 하는 절박한 심정도 여과 없이 보여줬다. 죽음을 앞둔 남편과 이제 생명을 시작한 자식 사이에서 정신 줄을 놓지 않으려 부단히도 애를 썼다. “한 손은 남편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아이를 잡은 채”라는 문구가 그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모른다. 그는 힘겹게 살아온 40여 년에 어떤 미사여구도 붙이지 않았다. 아홉 살까지 함께 살았던 친엄마에 대한 기억, 술로 버티다가 허망하게 떠난 아버지에 대한 원망,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낀 새엄마에 대한 애뜻함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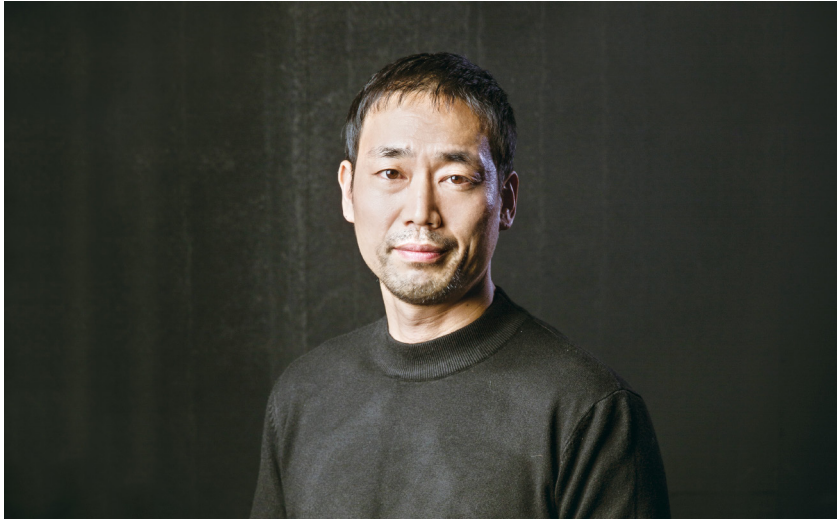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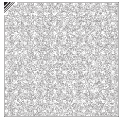
작가는 인생을 “견딜 수 없는 현실의 고통이 덮쳐온 순간, 나는 기억의 저 먼 곳까지 헤엄쳐 갔다”고 말했다. 이제는 어린 아들과 거친 세상을 헤쳐가야 하는 절박함에 대한 외침일까. 그 언덕에 오르자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작가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부탁했는데, 사진을 찍어주는 아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을 보내왔다. 사진 속 미소처럼 그들에게 행복만 가득하길 바란다.

김미희

작가



김미희는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했다. 《어린이 좋은 생각》 잡지에 삽화를,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아빠가 사라졌다!》 《엘리가 엘리를 만났어요》 등의 책에 그림을 그렸다. 현재는 남양주에서 그림책을 만들고 있다.



“국립극단이라는 놀이터에서 2년간 신나게 놀아볼게요.”

지난해 12월, 창단 70주년을 기념하는 국립극단의 올해 시즌 작품이 공개되는 자리에서 연극배우 이상홍 씨가 밝힌 각오다. 그는 2020년에서 2021년까지 두 시즌을 함께할 단원 14명 중 제일 만형이다. 어느 소감과 다르게 이 말이 공명을 울린 것은 자신을 세 아이의 아빠라고 소개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아이들을 키즈카페에 데려갔는데 상기된 얼굴로 2시간 동안 신나게 놀 거라 말한 게 기억나요.”

1999년 ‘극단 동시대’로 시작해 ‘한양레퍼토리’까지 연극을 비롯해 영화와 드라마까지 연기라면 매체를 가리지 않고 활동했다. 틈나는 대로 무대 위에서 관객을 만났지만 언제 다음 작품에 대한 불안과 안정적이지 못한 수입은 가장과 배우로서 한계를 펼쳐낼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오디션도 4전 5기 만에 합격한 것이다.

“작품 오디션이든, 단원 오디션이든 닥치는 대로 지원했죠. 그것은 ‘좋은 작품’에 대한 기대 때문이에요.” 더구나 나이 제한 때문에 국립극단과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막차를 탔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내쉬었다. 하지만 합격의 기쁨도 잠시. 동고동락한 동료들에게 미안했을까. 합격 사실조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할 수 없었던단다. 시즌 단원으로 선정되면 1년에 세 작품씩 2년간 총 6편에 참여하게 된다. 올해는 〈우리 연극 원형의 재발견-굿〉(6월 18일~7월 12일), 〈햄릿〉(11월 27일~12월 27일)이 예정돼 있다. 얼마 전 극단 옆 아동병원에 가는 딸이 “이제는 빨간 집에서 연극 안 해?”라고 물었는데 거짓말쟁이 아빠가 안 돼서 천만다행이라며, 앞으로 10년 뒤에도 무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연기하는 배우로 남고 싶다고 다짐했다.

글 이규승·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시즌배우의 참된 무게

이상홍 배우



이상홍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중퇴했다. 1999년 연극 〈신기루〉로 데뷔해 ‘극단 동시대’와 ‘한양레퍼토리’를 거쳐 현재는 ‘남만오빠’에 소속돼 있다. 연극뿐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출연작으로는 〈가로등이 켜지는 순간〉 〈죄와 벌〉 〈명왕성에서〉 〈깨끗하고 연약한〉 〈공포〉 〈아리아라리〉 〈생존도시〉 〈승관도〉 〈형제의 밤〉 〈미모되니까〉 등이 있다.

서울 할나

당신은
두려움보다
강철 같은
용기(勇氣)를
선택했습니다.
그리하여
유월의 밤
우리들 위로
늘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동작동 국립현충원〉
글·사진 김영호_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문화예술 긴급지원정책을 평가하고 제안하다

코로나19, 진단과 대책 수립을 위한
온라인 긴급 토론회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피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주요 문화예술 지원기관에서 긴급하게 진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평가하고, 제도 개선과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온라인 긴급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생중계로 진행됐다.

일시	2020년 4월 21일(화) 오후 3~6시
장소	청년예술청, 유튜브·페이스북 생중계
주최	서울문화재단(서울청년예술인회의), 성북문화재단(공유성북원탁회의), 문화연대,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예술인소셜유니온,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후원	서울문화재단
사회	최준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발제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공유성북원탁회의 사무국장
토론	강원재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정아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박주현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장 옥민아 공공연희 대표,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운영단 임현진 독립기획자, 한국거리예술협회 운영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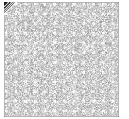
토론회 영상 youtu.be/u26Tf71jvn0

1부

코로나19, 문화예술 긴급지원정책 평가와 제안

하장호 먼저 코로나19 지원정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3가지 질문을 설정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의 위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인가'입니다. 코로나19로 예술 활동을 못 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피해가 분명 존재하지만 저도 그렇고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1월부터 4월까지의 수입이 없었어요. 그동안 잠재돼 있던 문화예술계 내의 위기 상황이 코로나19를 통해 터져 나왔다는 생각이구요. 두 번째는 위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을 제안해야 하는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지 의문이 생겼고요. 세 번째, 예술인의 삶과 예술이 지속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위기가 지나고 폐허가 된 문화예술계 안에서 누가 살아남아 예술을 지속할 수 있을지, 종 다양성이 남을 수 있을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지원정책을 조사해 보았는데, 중앙정부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곳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입니다.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지원정책이나 사업을 안내·전담하는 센터 형태를 갖춰놓았고요. 대관료 지원, 소극장 공연 기획 및 제작비 지원, 관람료 지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사업 관련 대책을 내놓았고, 예술 후원 프로젝트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은 문체부 소속 기관들의 기존 사업에 확장이나 추가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구요. 사업 예산 확보부터 운영까지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자체 중에서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가들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 중심의 설계를 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의 행정적 한계를 우회적으로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주었고요. 인천문화재단과 인천시는 초기부터 지역 거버넌스가 작동하면서 지역 예술인들과 소통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영등포문화재



단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지역문화예술인 대출 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자치구 차원의 중간 조직인 재단이 예술인을 보증해 주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지자체 지원은 코로나19로 진행이 어려워진 기존 사업 예산을 활용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실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형화해 보면 예술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형태,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예술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뉴딜형 지원, 대출·상환유예·이자 감면 등을 포함한 유동성 지원, 별도의 창작 활동 지원사업, 마지막으로 기존 보조금 사업의 유연한 운영입니다. 평가해 보면 먼저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나 정책이 부재합니다. 둘째, 공모형 지원사업의 홍수로 예술인은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셋째, 생태계 전체를 살리는 관점이 부재하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불가능하던 지원 방식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동하는 것은 새로운 지원 구조에 대한 실험과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제안으로는 일단 지원정책의 수립 과정에 생태계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필수적입니다. 예술인 직접 지원을 통한 생존권 보장과 생태계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변화된 창작 환경에서 예술가의 권리 보장을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해온 얘기들이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지원제도와 문화예술가 정책 자체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고, 코로나19 상황을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사회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인 대책회의도 제안합니다. 민간 차원에서라도 공동의 움직임이 필요하고 그동안 나온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구조를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최준영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피해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다양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재난 시기의 지원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사각지대도 없어지고 코로나19 이후를 얘기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예술 현장에서 긴요한 지원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아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공간을 운영하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기획자가 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기획자가 어떻게 업이 될 수 있을지가 화두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제 일이 업이 아니라 수혜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몇 개의 직업을 갖고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원제도를 비판하고, 예술가로서 자기반성도 하고 싶었어요. 긴급지원정책은 피해 사실 증명과 사회적 가치 증명, 온라인 콘텐츠화, 이 3가지가 모호한 범주 안에 있어요. 생계를 위한 일을 하면서도 기금을 신청하는 것은 예술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함이었거든요. 기존에 꾸준히 해오던 작업을 배제하고 다른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사회적 가치와 연결하게 하는 기금 체계가 궁극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제 가치를 증명하고 사회에 필요한 이야기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의 불편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예술인데, 계속 옳은 가치와 사회적인 이야기가 정리된 상태에서만 발현되는 게 한국의 예술인지 묻고 싶어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태계된 온라인 긴급 토론회
현장



임현진 저는 거리예술 분야에서 축제 기획과 공연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구조와 방식을 개선하고 다음 시대 예술로 같이 갈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예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예술가, 동료 기획자, 스태프와 이 시기를 같이 겪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정책의 패키지화가 필요합니다. 문체부와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기조를 마련하고 각 지자체와 공공과 민간 기관은 이를 근거로 계획을 짤아야 했는데 상상력의 범위가 넓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예술계 전체를 포괄하면서도 배타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각 기관과 예술계 종사자, 조직이 협력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영국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예술가만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조직, 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축제·행사가 취소됐을 경우 예술가에게 가능하면 공연료를 지급하라는 제언이었습니다. 이는 불가항력 조항을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저도 현장에서 불가항력 조항을 수없이 보았지만 윤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과연 우리는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서로에게 윤리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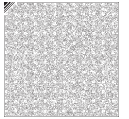
눈여겨본 부분은 중 다양성에 대한 고민인데요, 지자체나 문화재단의 사업에서 장르 특수성이나 현장의 다양한 피해 사례를 포괄하는 고민은 적어 보입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각 창작센터와 장르에 기반한 조직들이 연구 형태의 모임을 만들어서 장르 특수성과 중 다양성 유지를 고민해 줄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예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각각의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육민아 저는 코로나 시대에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예술인의 대표로 발언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12월부터 3월까지 소득이 없는 것은 익숙한데 마침 코로나가 그 시기에 터졌고요, 주변에 연극하는 친구들도 원래 다른

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재난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공연이 미뤄져서 연말에 바쁘겠다는 짐작을 하는 정도랄까요. 이제 공연 관람 형태와 작품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극을 관람할 때 앞뒤 좌우 자리를 비우니 관람 환경이 쾌적해졌어요. 배우들은 관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새롭게 변한 환경에서 오히려 연극의 본질을 질문하게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예술이 탄생해야 한다는 데 적극 동의합니다.

예술가도 시민이니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고, 예술의 생존은 문화재단이 걱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 신청서 마지막에 재난 상황에서 서울문화재단의 역할을 묻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술가로서 생존하는 것과 예술로 수익을 내는 두 개의 트랙이 있는데, 저는 예술을 지속하는 것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문화재단은 재난 상황에 생존할 수 있는 긴급지원정책을 마련하지만, 예술가는 언제나 긴급하고 재난 상황이었다는 생각이예요. 저에게는 매년 쓰던 지원서에서 플러스 알파가 됐을 뿐이고, 지원사업에 피로도가 높아졌다고 느꼈어요. 긴급지원정책은 변화에 대한 대응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주현 대학생은 공모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사업보다는 예술대 학생과 청년예술가가 겪는 예술 생태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예술대학에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는데 원래 실기 수업은 이론이 없다시피 했어요. 예술대 학생들은 불만이 많지만 문제는 예술대 학생보다 대학생이라는 정체성에 더 집중해서 대응한다는 거예요. 예술대 학생과 청년예술가만 모아서 목소리를 내기에는 학생들의 당사자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예술가가 되려면 예술 생태계를 알아야 하는데 그런 교육 없이 졸업 후 현장에 뚝 떨어져서 각자도생해요. 작년에 ‘예술대학 진로교육 및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94.3%가 졸업 후 취업이 아닌 예



술계 종사를 희망한다고 답했고요. 예술대학에서 진로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의견이 54%를 넘었어요. 예술대를 졸업하고 예술가로 정착하기까지 5년이 고비라고 해요. 이 시기에는 예술 활동 증명도 사실상 어려워요. 청년 예술가들은 생계를 유지하면서 버티거나 탈주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 그나마 정착하고 있던 청년예술가도 일자리를 잃고 있고요. 실패를 겪은 청년들은 예술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술계에 진입하는 청년 예술가의 정착을 돕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양혜원 저는 정책 연구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유효했는지 짚어보기 위한 조건은 즉각적으로, 필요한 곳에, 충분하게 이루어졌는가 3가지 같아요. 실제로 초기 대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세계적으로 팬데믹 선언을 한 뒤에 이뤄진 두 번째 긴급지원부터 현장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추경에서 분야별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었고 기존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적시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의 비율이 높은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늦었고, 온라인이나 비대면 프로젝트 지원 등이 뒤늦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추가 지원까지 포함해 900억 원 넘는 규모가 예정돼 있는데요. 지원이 적시에 진행되지 못해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통합적인 관리 체계의 부재라는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화예술 분야 위기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하지 않았어요.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계속 불만이 나오는 것은 지원 철학이 보이지 않고, 타 영역의 지원책까지 통합해서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영향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계속 생기는 상황에서 전수조사가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초반에는 기존의 통계자료를 통해 추산하는 작업을 했는데, 문제는 문화예술 분야 데이터

가 부족합니다. 피해 규모 산정을 위해서는 일별로 데이터가 축적되고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한데 현재는 한계가 있고요. 실태조사도 사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대상 범위 설정이나 피해 규모 산정 기준과 방법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요.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향후 재난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 분야에 한정하기보다는 관광이나 스포츠계와 같이 문화재난기금을 조성하면 사회적인 이해와 재원 조성에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고용부와 복지부의 일반적인 사회복지 체계 속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복지도 같이 이뤄질 필요가 있고,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할지 사회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강원재 저는 지자체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그 역할을 잘 하려다 보니 생겨나는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긴급지원으로 단체 63개, 개인 113명 지원을 결정하고 공지사항으로 올렸더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취소된 봄꽃축제 예산을 전용하는 게 타당한지, 두 번째 영등포에 있는 문화예술인한테 빠짐없이 지원되는지의 문제 제기가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는 문화예술계만 먼저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 네 번째는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영등포구가 왜 선제적으로 하느냐는 문제 제기였어요. 저는 이 문제 제기 안에 현재 문화재단이나 공공기관이 적시적소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기초와 현장과 광역과 중앙이 협력하며 같이 추진하는 종합 계획의 부재가 확인됐고요. 보육계, 체육계와 비교되는 선상에서 어떻게 지원의 타당성을 이야기할지의 어려움이 한쪽으로 남아있고요. 전체를 다 구하겠다고 계획을 세울 때까지 멈추라고 하는 순간 한 명도 못 구한다는 생각에서 분명한 답이 있었고요. 예산 전용은 의지에 달린 문제 같아요. 안 하고 있으면 지역

(왼쪽부터)
최준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강원재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단위의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바는 아무 것도 없습니
다. 영등포문화재단은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2월부터 대책 논의를 시작했어요. 공론장이 없었다
면 현장의 위기감에 늦게 반응했을 거고, 2월에 시작해서
4월에라도 진도를 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 문화예술의 형태가 달라질 거라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아직 만들
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과연 공공극장에서 감염된 사람
이 있는지, 광장에서 감염된 사람이 있고 몇 퍼센트나 되
는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 시간이 필요하고 조금 더 시간
을 갖고 판단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부

코로나19, 시급하지만 길게 봐야 할 과제들

최준영 발제자께서 토론을 듣고 생각한 얘기를 해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자유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장호 일단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을 다르게 접근해야 할
시기라는 라도삼 연구위원의 얘기가 떠올랐어요. 문화
정책은 시민들의 문화권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민주주
의의 가치에 맞는 정책이 설계되어야 하고, 예술정책은 예
술인 당사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고
민, 예술의 지속성에 관한 고민으로 세분되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또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과정 중심으로 보고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예
술 활동 주체들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고 어떤 생애주기
로 창작 활동을 하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저는 전수조사
라는 과정 자체가 갖는 소통의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
해요. 공공 영역에서 이런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만으로
도 현장 예술가들에게 신뢰감을 주거든요. 지금 예술을
왜 지원해야 하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독일과
영국은 예술이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구성원과 공동체
를 지탱하고 연결해 주는 힘이 된다는 명백한 가치를 애
기하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함께 공공 영역에서 예술의 사회
적 가치를 확인해 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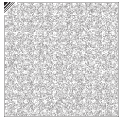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예술인 평의
회와 독립적인 국가예술위원회를 제안했는데요. 예술인
평의회는 위기감을 느끼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먼저 새
로운 논의 구조와 연대의 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술계 안에서 스스로 노력하고 같이 책임지고 논의하
는 장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육민아 긴급지원정책은 분명한 피해 사실이 있는 예술인
지원으로 조금 더 섬세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청년예술가들이 지원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걸
통해 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지원정책이 주효한지는 의
문이 들었습니다. 문화예술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포기되는 영역인데요. 재난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영역
에 문화가 자리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합의를 만드는 계
기가 됐으면 합니다.

강정아 저는 기금을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공간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사업자와 자영
업자에 걸쳐 있는 창작자들이 미래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는 자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은 함께 만들어야 하는데 유독 예술가 당사자에게 요청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행정과 예술가 당사자들이
같이 얘기하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준영 문화예술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기존의
지원사업에서 배제된 영역을 어떻게 찾고 지원할지 이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현진 저도 예술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은 기본이고요. 우리 사회 모두 재난을 겪



었는데 이후 예술의 역할이 이전과 동일할 수는 없겠죠. 재난을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좀 더 건설적인 대화가 포함돼야 합니다.

양혜원 댓글을 보면 문화재난기금을 예술 분야에만 따로 지원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이 많은데요. 문화예술 분야만을 위한 재난기금은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좀 더 실용적인 방안을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온라인이나 비대면 콘텐츠가 현장의 문화예술을 대체하지는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콘텐츠 상용화를 위한 베타 테스트 시기로 이 시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조심해야 할 것은 기술 결정론의 위험성입니다. 기술만 뒷받침된다고 사람들이 보진 않거든요. 콘텐츠의 질적인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꾸준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준영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컨트롤타워에서 사회적 재난 시기의 예술의 가치를 언급하고 전반적으로 인식이 공유되면 조금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장호 실질적인 피해 형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기대하는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는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예상된 활동이 연기되거나 파면 경우 거기에 참여해 오던 예술가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과 예술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지원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을 포함한 기금 조성에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요. 이참에 새로운 기

금 관련 아이디어나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민간 차원에서 공공기금을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최준영 불용이 예상되는 재원으로 당장의 피해만 지원하면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얘기였고요. 중장기적으로 예술 생태계를 지속하기 위한 정책, 제도, 거버넌스를 포함한 최소한의 준비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재 코로나19로 발생한 재난 다음의 재난은 또 다른 국면일 것이고 주기도 짧아지고 영향력은 커질 것이라는, 변화하는 사회 전체를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환경이 나빠지고 수많은 오염이 일어나는 상황과 삶을 전환하지 않고는 답이 없고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문화예술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영역이라 생각하고요.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가질 권리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은 더 나은 재생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통재로서 대면 생산이 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만드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고 논의하고 정책적으로 풀어내면 좋겠습니다.

최준영 코로나19 국면에서 많은 문화예술인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논의하되 길게 보면서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한 단위들이 이후 논의를 어떻게 이어갈지 발표하고 논의 자리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리 전민정, 객원 기자, 문화정책 연구·기획 사진 서울문화재단

(왼쪽부터)
박주현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장,
임현진
독립기획자,
강정아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육민아
공공연희 대표,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우리는 사각지대 속의 사각지대다”

코로나19 문화예술 지원책의 사각지대,
아동청소년극·독립영화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에 모든 것이 멈춰 선 봄이었다. 거의 모든 산업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불특정 다수의 밀집이 불가피한 공연예술계의 피해는 막대하다. 주요 극장이 문을 닫거나 제한적 운영에 들어간 상황에서 거리 두기 객석제로라도 작품을 올릴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낮다. 성인극과 달리 아동·청소년극 관련 단체와 평소에도 상영관 확보 및 관객 동원이 쉽지 않은 독립영화계가 직면한 현실은 더욱 가혹하다. “문화계가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라면 우리는 사각지대 속의 사각지대”라는 자조마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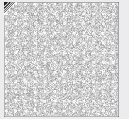
쪼그라든 공연 시장, 사라진(?) 아동극 시장

코로나19 사태로 공연 시장의 매출은 큰 폭으로 고꾸라졌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공연예술 분야 매출액은 2020년 1월 약 390억 원에서 2월 200억 원으로 내려가더니 3월 90억 원, 4월 47억 원까지 내려앉았다. 잠정 중단에 들어갔던 대형 작품들이 잇따라 공연을 재개하면서 5월 매출은 19일 현재 60억 원대까지 올라갔으나 여전히 100억 원대를 밑돌고 있다.

모두 어렵고 힘들지만 아동·청소년극 시장은 그야말로 고사 직전이다. 당장 성인극은 방역을 전제로 공연을 올릴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극은 주 관객의 특성상 모든 공연을 열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1월 36억 원이던 아동·청소년극 매출은 5월 현재 5,000만 원대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은 성인극과는 다른 공연 운영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성인극은 주로 대관 공연 중심으로 개인 관객 대상 티켓 판매로 수익을 올린다. 반면 아동·청소년극은 대관보다는 지역 문예회관이나 도서관 등 초청 공연 비중이 높고, 수익 역시 여기서 나온다.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 국공립극장과 지역 문예회관이 가장 먼저 문을 닫은 상황에서 주 수익원이 원천 차단

된 것이다. 실제로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가 한국인형극협회·유니마 코리아와 조사한 239개 아동·청소년 공연단체(개인 포함)의 1~4월 피해액은 23억 1,941만 원에 달한다. 관련 아티스트들의 고용도 크게 흔들렸다. 인력 구조 조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무급휴직과 객원 인력 계약 취소가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극 업계는 성인극과 구분되는 별도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방지영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이사장은 “성인극과 같은 접근 방식으로는 ‘지원도 아이들 밥 공기 사이즈만큼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인식에 그치고 만다”라며 “교육 목적도 커 어떤 장르보다 연구와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식이라면 미래 관객 육성도 요원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연계를 위해 내놓은 지원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단체 대관료 지원, 소규모 공연장 방역 물품 지원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는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을 통한 융자 지원도 대상이 개인에 국한돼 있어 극단 차원의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긴 힘든 데다 사단법인 형태의 비영리단체의 경우 손실 보전 범위에



1



2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을 통한 대출조차 불가능하다. 한 어린이극 제작사 관계자는 “이런저런 대책이 쏟아지고는 있지만, 사실상 극단들이 기댈 수 있는 선택지는 거의 없다”며 “애초 아동·청소년극을 성인극의 걸다리로 넣어 지원을 논의해선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해 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아동·청소년극’ 분야를 별도로 분류해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의 지원 대상을 연극, 무용, 음

악, 전통, 시각, 다원, 문학행사, 아동·청소년극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아동·청소년극 장르를 단순히 연극 또는 다원 공연으로 묶어 공모할 경우 선정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재단의 이번 지원 대상 분류가 그나마 업계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화 생태계 최하위, 독립영화계 현실

영화 생태계 최하위에 있는 독립·예술영화 단체와 개인들의 사정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독립영화 공동행동’이 독립영화 단체 및 기업 23곳과 개인 5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 응답자의 42%가 코로나19 사태 기간 수입이 전무(全無)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개인 응답자의 51%는 어떤 지원 신청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 신청·지급 절차가 복잡한 데다 기준도 까다로워서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최근 영화진흥위원회는 극장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90% 감면, 제작·개봉이 연기된 영화 지원, 200개 영화관 특별전 개최 지원 및 영화 할인권 130만 장 제공 등을 담은 17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지원책에 대한 영화인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특히 독립영화계에 대한 지원은 지금보다 훨씬 확대돼야 한다는 게 모든 영화인의 주장이다. 실제로 영화계 관계자 355명은 정부의 지원책 발표 직후 ‘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범영화인의 요구’라는 성명을 내고 독립영화계와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영화산업 지원 대책은 대부분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려운 독립영화인의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독립영화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창작지원금·활동지원금 등의 긴급 지원과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고용 유지 지원, 독립·예술영화 전용상영관 긴급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책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글 송주희(서울경제신문) 기자 사진 제공 연합뉴스

1 예술의전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연장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방역 체계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창작자를 위한 사다리 법의 필요성

‘구름빵 사건’을 통해 본 저작권 문제

지난 3월, 그림책 《구름빵》의 원작자인 백희나 작가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문학상을 수상했다.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문학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기에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언론에 회자되는 ‘구름빵 사건’은 마냥 유쾌하지만은 않다.

‘구름빵 사건’을 두고 백 작가의 상황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백 작가에게 저작권을 돌려주라는 국민 청원도 등장했다. 그러나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했으면 서도 이제 와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만만찮다.

끝나지 않는 논쟁, ‘구름빵 사건’의 쟁점은?

그림책을 보지 않는 사람도 들어봤을 ‘구름빵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2003년 《구름빵》출간 계약 당시 백희나 작가와 출판사인 한솔수북은 저작권격권을 제외한 출판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재산권의 모든 권리를 한솔수북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절 계약을 체결했으나 저작재산권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해당 계약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백 작가는 한솔수북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구름빵》은 그림책 자체만으로도 15년간 40여만 부가 팔렸고, 뮤지컬 같은 2차 콘텐츠가 제작될 정도로 엄청난 흥행 성적을 거두었지만 원작자인 백 작가가 출판사로부터 저작권료 및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1,85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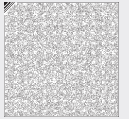
백 작가의 주장에 대해 출판사는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애초에 백 작가와 체결한 계약은 단행본에 대한 출판 계약이 아닌 유아 대상 회원제 북클럽 상품에 삽입되는 저작물 개발 용역 계약이었으며, 계약 당시 백 작가도 저작권 양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북클럽 상품에 들어가는 수십 권의 책을 동시에 제작하는 만큼 책이 팔릴 때마다 인세를 지

급하는 계약 방식이 불가능해 매절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신인 작가에게 당시 4만 부 판매에 해당하는 인세를 지급한 것은 출판사에서도 상당한 위험을 안고 투자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같이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2003년 당시 백 씨가 신인 작가였던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 조항은 상업적인 위험을 적절히 분담하려는 측면도 있으며 백 씨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백 작가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백 작가는 상고해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보이지 않는 관계까지 아우를 수 있는 법 제도의 필요성

대한민국 민법의 기본 원리는 바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이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사법(私法) 관계에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의 종류, 내용을 자유로이 결정해 체결할 수 있고, 이렇게 체결된 계약에 대해 당사자는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사법관계의 처리에 대해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최소한으로 개입할 뿐이다. 법적 안정



성을 위해서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공박·경솔·무경험 등의 사정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법원은 사후에 계약을 무효로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구름뽕 사건’의 발단이 된 ‘매절 계약’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무효라 할 수 없고, ‘계약 체결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무효로 보거나 저작권 양도 계약이 아닌 출판 계약으로 한정 해석 하게 된다. 따라서 자칫 냉정해 보이는 1·2심의 판결은 바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해, 백 작가와 한솔수북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을 살폈을 때 해당 매절 계약이 백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적자치의 원칙에는 맹점이 있다. 사적자치의 전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인데 현실의 ‘갑을 관계’에서 과연 자유로운 의사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부당한 저작권 양도 특약이 있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백 작가도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매절 계약 체결 당시 저작권 양도 조항을 알고 있었고, 수정 요청을 했지만 거절됐다고 한다. 이처럼 현실에는 작가에게 불리한 저작권 양도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갑’이 제시하는 조건에 거부할 수 없는 ‘을’이 너무나도 많다. 계약서의 텍스트로 미처 드러나지 않는 갑을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묘하게 악용되는 갑을 관계를 간과하고 사적자치의 원칙을 고수하며 전적으로 당사자 간의 민사 계약에 맡겨서만 안 된다. 백 작가 사건과 동일한 관례만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작권에 대한 포괄 양도 등을 일정한 조건에서 제한하거나 사후에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입법화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현실의 ‘을’을 보호해야 한다.

‘구름뽕 사건’이 문제 되기 시작하자 일명 ‘구름뽕 보호



법’ ‘구름뽕 방지법’이라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구름뽕 보호법’은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구름뽕 방지법’ 역시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그간 저작권은 개별 민간 관계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월 13일 ‘매절 계약’에 대한 추가 보상권을 도입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구름뽕 사건’으로 말미암아 창작자들의 현실을 법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법의 기준은 흔들림 없이 하나여야 하고, 법의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 선불리 당사자 간의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미처 아우를 수 없는 현실에 형식적인 법 적용은 오히려 갑을 관계만 고고히 해줄 뿐이다. 따라서 창작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진정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사다리를 만들어줄 때다.

글 박주희_법률사무소제이 대표 변호사

브런치를 먹듯 맛있게 즐기는 일상 속 문화예술

올해로 5년차 맞는

ACC(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브런치콘서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힐링이 되는 독특한 ‘브런치’가 있다. 바로 일상 속 예술과 함께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연 프로그램 ‘ACC 브런치콘서트’다. 매회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평일 늦은 오전, 시민들이 여유롭게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예술가들과 진솔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자리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거리 두기 객석제’를 도입했다. 지난 5월 15일 더블베이스스트 성민제와 TIMF앙상블의 협연으로 펼쳐진 <트위스트 인 클래식>을 시작으로, 27일에는 동화적인 스토리텔링을 토대로 마임·세도그래피·미디어아트·신체극 등을 결합한 컨템퍼러리 마술 <스냅(SNAP)>이 무대에 올랐다.

하프 앙상블로 맛보는 휴식 같은 선물

그런 가운데 6월 10일(수) ACC 브런치콘서트 세 번째 이야기에는 국내외 수많은 무대를 통해 천상의 소리를 들려주는 하피스트 광정과 그녀와 동행하고 있는 하피 데이앙상블의 <Harp Concert>가 마련돼 있다. <Harp Concert>는 하프를 좋아하는 관객뿐만 아니라 하프를 잘 모르는 대중도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프를 위해 작곡된 곡으로 우아한 선율을 자랑하는 마르셀 그랑자니(Marcel Grandjany)의 <Aria in Classic Style, Op. 19>과 존 토마스(John Thomas)의 하프곡 <Cambria 1·3악장>을 비롯해, 클래식 명곡과 재즈, 한국 전통 민요 그리고 다양한 가곡을 들려주며 하프에 담긴 청아한 소리를 통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6월 브런치콘서트
무대에 오르는
하피스트 광정



하피스트 콰르텟은 세계적인 지휘자 주빈 메타(Zubin Mehta)가 이스라엘 필(Israel Philharmonic Orchestra)의 첫 내한 공연 협연자로 직접 선정하면서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협연하며 현재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하프 연주자다. <콰르텟의 하프 이야기>를 비롯해 다양한 공연을 개최, <Jewels> <Angelic Moment> <The Best> 등 많은 앨범을 출시하며 하프의 대중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녀가 음악감독으로 있는 하피데이앙상블은 리더 방선영을 주축으로 멤버 지윤미·지예송·황세영·황세희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하피스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국내외 콩쿠르와 오디션 및 연주회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최근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차세대 하피스트다. 2002년 창단 연주회 개최 후, 국내외 곳곳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음은 물론 하프 교육과 자선공연도 열고 있다. 2016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리사이틀을 개최했으며, 2017년에는 ITALY & USA주최 'ALBA MUSIC FESTIVAL'에 초청돼 이탈리아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2019년에는 뉴욕 링컨 센터 공연을 포함해 미국 4개 도시를 순회하며 공연했다. 오는 6월 1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이들이 펼치는 환상적인 하프 앙상블로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휴식을 만끽해 보길 바란다.

한국의 전통예술을 열정으로 두드리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하프의 아름다운 선율로 부드럽고 따뜻한 음악 이야기를 전한다면, 2주 뒤인 6월 24일(수)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한국의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두드림의 에너지와 절정을 보여주는 타악그룹 타고(TAGO)의 <맨 앤 드럼(Man and Drum)>이 관객을 찾아올 예정이다. 타고는 '두드려 세상을 밝힌다'라는 슬로건을 앞세우며, 한국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독창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 한국 음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

리고 있는 그룹이다. 또한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대중에게 신선하고 재미있으면서 더욱 가치 있는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로 타악그룹 타고가 보여주는 열정이다.

이들은 2016년과 2017년 세계 3대 축제인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Edinburgh Festival Fringe)에서 16회 전석 매진과 동시에 올림 있는 무대로 별 5개의 최고점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2018년과 2019년에는 유럽·남미·북아메리카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고, 올해는 네덜란드 22개 도시 투어를 확정, 해외 무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타고만의 북을 다루는 뛰어난 기술과 역동적인 퍼포먼스, 율고의 아름다운 선율, 한민족의 슬픔을 표현하는 구전음, 폭풍우나 천둥의 심장 소리와 같은 북소리 등으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이다. 천신에게 제를 올리는 의식 <진혼 고>를 시작으로, 타고가 직접 개발한 사각형 북을 4명이 함께 연주하는 <율고>와 역동적인 남성의 맥박 소리를 작품화한 <백호> 등의 다채로운 무대가 준비된 가운데, 북과 춤사위가 결합된 <천지수화>로 화려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특히 여러 명의 연주자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 <태무>는 기존 전통춤인 '태평무'에 율고와 북이 어우러지며 타고만의 색채로 재탄생한다. 한국의 전통 의식과 사상을 재해석해 깊이 있는 전통의 가치를 전하면서 대중성과 세련미가 겸비된 풍성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이 절실해지는 요즘, 천상의 악기 하프가 전하는 따뜻하고 희망 가득한 음악 이야기와 한국 전통예술의 진솔한 율림과 교감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무대가 될 것이다. 여름의 시작에 ACC 브런치콘서트를 통해 그들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설렘과 공감의 시간을 느껴보기 바란다.

글 정한결 공연평론가 사진 제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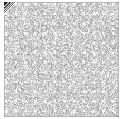
홍대 앞에 기업 미술관이?

서드뮤지엄 (3rd Museum)

서드뮤지엄이 품은 숫자 3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한때 '대안'과 '제2'를 부르짖으며 부상한 홍대 앞에 등장한 기업 미술관이 '제1'이 아닌 '제3'을 내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불균질한 홍대 앞 문화예술 생태계에 묵직한 균형추를 드리우고자 하는 이곳의 움직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유흥이 아닌 문화예술 관점에서 홍대 앞을 진단한다면 '대안 문화'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기성 문화에 대한 비판이 가장 신랄하게 쏟아지는 곳이자 그에 대한 재기 발랄한 아이디어와 대안이 샘솟던 곳. 2000년대 들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인디(indie)-'와 '독립-'의 가치를 만들던 홍대 앞이 그 힘을 잃은 건 아마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이후일 것이다. 문화로 꽃을 피운 동네, 다양성으로 빛을 내던 골목이 그렇게 자본주의에 잠식됐다.

서드뮤지엄(마포구 잔다리로3길 4)은 첨단 제약기업 다림바이오텍이 문화예술 후원의 일환으로 사옥의 일부를 내어 만든 기업 미술관이다. 빌딩과 카페가 연달아 등장하는 교차로 한복판, 영롱한 홀로그램 빛을 반사하며 존 재감을 드러내는 공간이 있다면 잘 찾은 것이다. '인스타그램용 인증샷' 찍기 좋은, 젊은 층의 시선을 빼앗는 외양에 출입구를 발견하기 어렵다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볼 것을 추천한다.



바로 그곳이다. “톡” 하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문이 열린다. 눈부신 외부와 달리 공간은 작고, 조밀하다. 오른편의 안내 데스크와 그 옆에 배치된 작품이 이곳이 ‘미술관’임을 알려준다. 서드뮤지엄은 미술가 최정화가 개관 전시의 기획과 디자인을 맡아 화제가 된 공간이다. ‘작품’과 ‘용품’을 뒤섞고, 규범을 맘껏 비꼬는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최정화에게서 상상한 이미지와 달리 공간 내부는 ‘심플’하고 ‘클래식’하다. 지상과 지하 공간은 최정화의 작품 〈인피니티〉와 〈기동은 기동이다〉로 연결되는데, 넓지 않은 공간에 전시하게 될 작품이 돋보일 수 있도록 배려해 설치한 것이 돋보인다.

‘서드뮤지엄(3rd Museum)’이라는 이름을 들은 많은 이들이 ‘대안’ ‘제2(2nd)’, 그리고 ‘제3(3rd)’의 연관성을 생각할 것이다. 틀린 추측은 아닌 것 같다. 서드뮤지엄은 ‘홍대 앞, 제3의, 새로운 시공간’을 표방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2 다음의 3이 아니라 우리의 삶·생활·생명을 지칭하기도 하며, 나·너·우리가 함께하는 벌이는 곳·짓·것의 공간임을 내세운다.

미술관의 곳·짓·것

곳, ‘공간’이 갖는 가능성은 무한해 보인다. 작지만 이모저모를 다채롭게 활용한 전시 공간에는 안내와 주의 문구만 있을 뿐 관람객의 자유로운 관람을 제한하는 장치가 없다. 외양으로 보자면 블랙 큐브(사육)와 화이트 큐브(전시장)가 공존하고, 통유리로 마감된 외벽은 전시의 성격에 따라 생활 공간과 전시 공간을 단절하거나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해 두 공간을 매개할 수도



1 올해 2월까지 열린 홍지윤의 개인전 〈꽃, 구름(花, 云)〉 전시장 전경
2 미술관 외부에 설치된 임지빈의 작품 〈너로 인해 나는 아프다〉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월 22일부터는 임지빈 작가의 개인전이 진행되고 있다. 미술에 관심이 없는 이라도 어디선가 한 번쯤 접해봤을, 베어브릭을 활용한 팝아트 작업이 본관과 공사가 진행 중인 신관 부지에 설치돼 있다. 작은 크기의 오브제부터 해외 전시 사진, 외부 설치물까지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품 제목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슬레이브(slave)’라고 지칭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소유와 욕망의 노예가 돼가는 현대인을 상징한 것이다. 신축 공사 중인 현장에 끼어 있는 곰 풍선은 임지빈 작가가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에브리웨어(EVERYWHER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치한 작품이다. 전시장에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한정적이라는 현실에, 폐쇄된 전시장을 벗어나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자 ‘어디에나’ ‘찾아가는’ 작품을 고안한 것이다. 어쩐지 현실에 끼어버린 듯한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은 〈EVERYWHERE in Hong Dae No. 1 at Third Museum〉은 본관 전시가 끝나는 6월 21일까지 햇별이 내리쬐나 비가 오나 이곳을 지킬 예정이다.

짓, 어떤 ‘예술적 실험’이 이곳에서 싹을 틔울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1960년대 지어진 공간을 리모델링해 또 다른 예술적 공간으로 사용하려는 작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서드뮤지엄은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계획하고 있다. 디자이너 정병규의 강연, 작곡가이자 연주자 원일과 연출가 적극이 협업한 공연 등 전시를 기반으로 학술·교육·인문학·테크놀로지·서브컬처 등 우리 삶을 둘러싼 잡다한 짓을 펼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것, 미술관의 핵심이 되는 ‘전시’는 기초를 정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운영된다. 민화 작품과 추사 김정희, 우석 최규명의 서예 작품으로 구성된 개관 전시 〈삼색광경(三色光景)-민화의 색, 추사의 빛, 우석의 경〉(2019년 9월~12월)은 아름다운 과거와 미래의 기억을 엮어 동양의 미학을 보여줬다. 이어 진행된 홍지윤의 개인전 〈꽃, 구름(花, 云)〉(2019년 12월~2020년 2월)과 임지빈의 개인전 〈지금·여기〉(2020년 4월~6월)는 현재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작가의 작품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서드뮤지엄의 열린 다양성을 보여준다.

서드뮤지엄은 불균질한 홍대 앞 문화예술 지형에 드리운 균형추가 될 수 있을까? 서드뮤지엄의 디렉터가 홍대 앞에서 처음으로 ‘대안 공간’이라는 이름을 달고 1999년 개관한 대안공간 루프의 부디렉터였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다.

글 김태희_객원 편집위원 사진 제공 서드뮤지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인류를 위한 희망가

온라인 공연 <원 월드: 투게더 앳 홈
(One World: Together At Home)>과
<모멘트 뮤지컬(Moment Musical)>

2020년을 살고 있는 인류는 국가와 인종을 초월해 모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처음 보고된 감염병 '코로나19'는 세계 전 지역으로 번지며 총성 한 발 없이 30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다. 사그라지지 않는 확산세와 폭증하는 사망자에 감염병과 인류의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비유까지 나올 정도다. 인류의 일상은 멈췄고, 예술은 사치가 된 시대다. 그럼에도 예술은 인류를 위로하는 길을 찾았고, 위기 상황 속에 존재 이유가 다시 빛나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원 월드: 투게더 앳 홈>

2020 라이브 에이드, 고립된 세계를 연결하다

<원 월드: 투게더 앳 홈> | 4. 18 | 유튜브 등 온라인 생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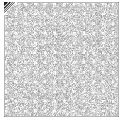
코로나19는 세계 대부분의 공연장 문을 걸어 잠그게 했다. 세계 연극·뮤지컬의 양대 산맥 영국 웨스트엔드와 미국 브로드웨이는 장기간 공연장 폐쇄를 결정했고, 콘서트홀을 지키던 오케스트라는 저마다의 고향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무대를 잃은 공연예술계는 곧 온라인이라는 공간으로 눈을 돌렸다. 이제는 공연의 익숙한 한 형태로 자리 잡은 '방구석 콘서트'와 같은 온라인 공연이 시작됐고, 콘서트홀에서 관객 없이 생중계로 세계에 영상을 내보내는 연주회도 나오기 시작했다.

쏟아지는 온라인 공연 중에서 특히 인상적인 공연이 있다. 장르의 경계를 넘어 세계 각지를 연결해 진행한 초대형 자선 콘서트 <원 월드: 투게더 앳 홈>이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비틀스의 멤버 폴 매카트니와 롤링 스톤스를 비롯해 엘튼 존·스티비 원더·셀린 디온·테일러 스위프트·빌리 아일리시 등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최고 인기 가수들이 총출동했다.

세계적인 팝스타인 레이디 가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 세계 의료진을 응원하고, 세계인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촉구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및 글로벌 시티즌(Global Citizen)과 함께 온라인 공연을 기획·개최했다. 미국·영국·멕시코·인도·한국 등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 중인 세계의 가수들을 영상으로 연결해 8시간 동안 릴레이로 콘서트를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폴 매카트니는 연주와 노래에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우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전 세계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이런 위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며 세계 정상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세계인의 연대를 촉구했다. 매카트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간호사였던 어머니에 대한 추억도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을 향해 "당신들이 진짜 영웅"이라고 덧붙이며 <레이디 마돈나(Lady Madonna)>를 열창했다.

공연은 유튜브 등을 통해 세계에 생중계됐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와 빌 게이츠 부부, 데이비드 베컴 부부, 오프라 윈프리 등도 자택에서 찍은 영상 메시지로 동참했다. 8시간 온라인 공연에 5,000만 달러(약 608억 원)가 넘는 기부금이 모이며 1985년 아프리카 난민과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개최한 대규모 자선공연 <라이브 에이드(Live Aid)> 2020년 버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도이치 그라모폰 유튜브 채널의 온라인 무관중 연주회 〈모멘트 뮤지컬〉에서 연주하는 조성진

거장과 신성이 손끝으로 전하는 위로와 희망

〈모멘트 뮤지컬〉 | 3. 28~ | 도이치 그라모폰 유튜브 채널

한국 시각으로 지난 4월 20일 오전 1시 30분.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시민이 안부를 묻는다. 이에 스페인 마드리드 시민이 답하고 미국 오리건·일본 오사카·대한민국 서울 등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다. “모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이 순간만큼은 음악으로 희망을 얻자”라는 말이 이어졌다.

코로나19로 세계의 공연장이 문을 닫은 이후 지구촌 클래식 팬들이 주기적으로 모이는 공간이 생겼다. 세계 최고 권위 클래식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Deutsche Grammophon)의 유튜브 채널이다. 이날은 클래식 거장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자가 아닌 피아니스트로 무대에 섰다. 명지휘자의 연주는 그 자체로 특별한 선물이었다. 바렌보임은 관객 한 명 없는 텅 빈 베를린 피에르 불레즈 홀에 앉아 약 33분간 프레데리크 쇼팽의 음악을 선사했다.

도이치 그라모폰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기획한 온라인 무관중 연주회

〈모멘트 뮤지컬〉은 매주 세계적인 연주자의 공연을 실시간(지연 생중계)으로 세계에 전하며 음악과 예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비록 유튜브 화면으로 만나는 공연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전염병에서 오는 슬픔과 우울은 사라지고 얼굴도 모르는 세계의 시민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코로나19 이후 일상을 되찾은 삶을 이야기한다. 음악과 연주자는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시리즈의 백미는 지난 4월 26일 베를린 마이스터홀에서 진행된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회다. 바렌보임의 바통을 이어받은 조성진은 최근 발매한 앨범 〈방랑자(The Wanderer)〉 수록곡 베르크 〈피아노 소나타, Op.1〉과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 등을 연주하며 시대를 위로했다. 이날 공연은 4만 8,000명이 넘는 관객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도이치 그라모폰은 지난 5월 15일에는 한국인 소프라노 박혜상을 〈모멘트 뮤지컬〉의 6번째 아티스트로 무대에 올렸고,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꾸준히 온라인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글 박성국_《서울신문》기자 사진 각 유튜브 갈무리

빛의 미술, 초현실을 낳다

전시 <빛의 벙커: 반 고흐>와
<르네 마그리트 특별전: 인사이드 마그리트>

태초에 빛이 있었다. 빛 닿은 자리에 시선이 피어난다. 광활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울동하는 불후의 명작, 공간 전체를 빛으로 채우는 최첨단 미디어아트 전시가 서울과 제주에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가장 뜨거운 미술 관람 형태로 자리 잡은 몰입형 전시의 대표 주자다. 빛의 유채(油彩)가 온몸을 적신다.

빛의 전율

<빛의 벙커: 반 고흐> | 2019. 12. 6~2020. 10. 25 | 빛의 벙커(제주)
벙커의 암흑이 화폭이 된다. 제주 서귀포 성산읍에 있는 해저 광케이블 보관 벙커를 탈바꿈한 전시장으로, 단층으로 이뤄진 2,975m²(900평) 면적의 어둠이 빛의 본색을 극대화한다. 이곳에서 빈센트 반 고흐(1853~1890)가 새 생명을 얻는다. 전시장 내 90여 개 프로젝터에서 고흐의 대표작이 삼면으로 쏟아지며 음악과 함께 30분간 맥동한다. 화단의 물이해 속에서 비참하게 숨을 거뒀으나 사후 영원한 광휘를 얻은 이 화가가 '어둠과 빛'이라는 전시 콘셉트를 단박에 장악한다. 관람객 56만 명을 모으며 대흥행한 지난 전시 <빛의 벙커: 클림트>를 체험한 이들의 입소문으로 제주 명물이 된 지 오래다. 빛의 물감이지만, 고흐 특유의 임파스토(impasto) 기법을 재현해 덧바른 유화의 두께가 선명하다. 붓질의 강약까지 여실히 드러내는 클로즈업 덕분에, 이를테면 <해바라기>는 정물화지만 거의 동물처럼 느껴진다. <감자 먹는 사람들>로 대표되는 농촌의 어두운 광경을 지나, 그가 빛의 기법을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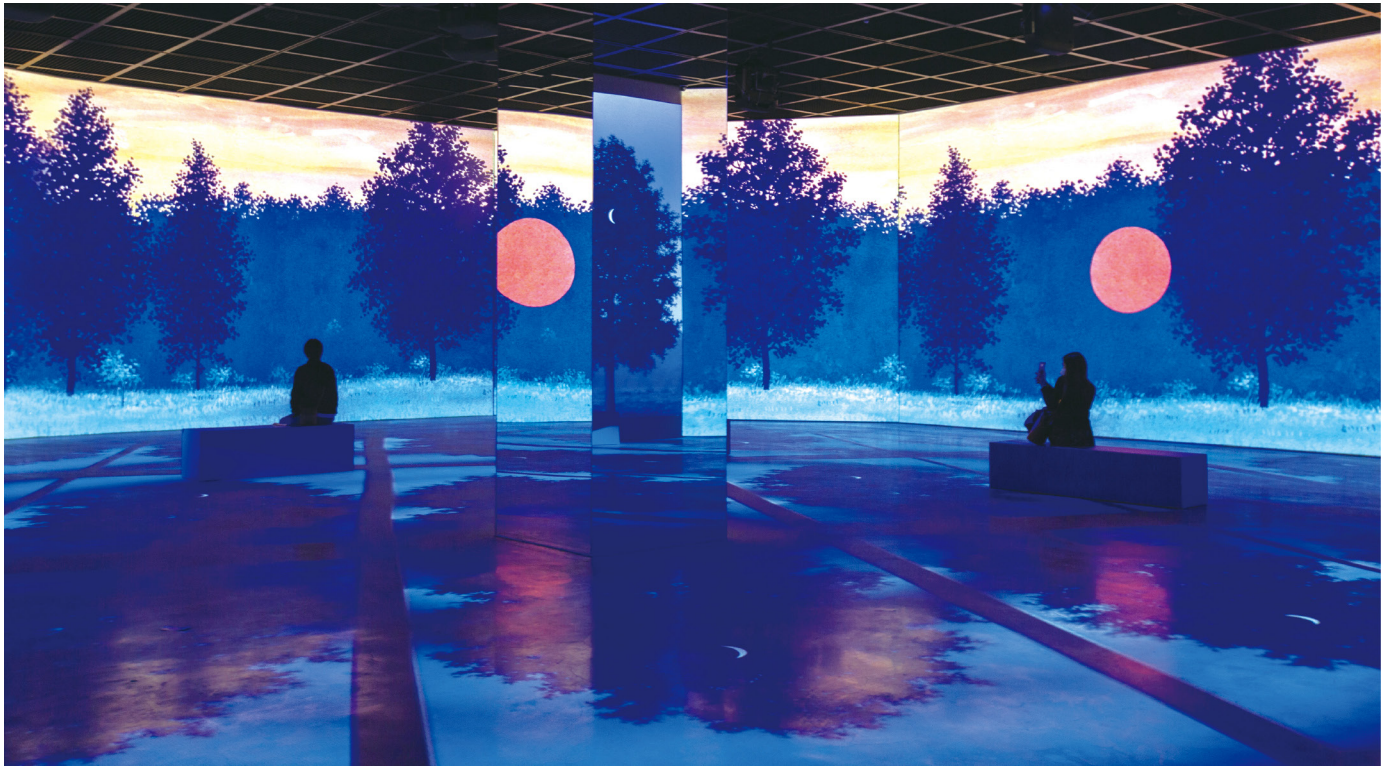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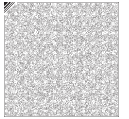


<빛의 벙커: 반 고흐> 전시장 전경

한 프랑스 아를(Arles) 풍경에서 빛의 서정이 폭발한다. 관람객은 <밤의 카페테라스>에 앉았다가 <아를의 반 고흐의 방>에도 머문다. 고흐가 1889년 요양했던 생레미(Saint-Rémy) 요양소, 불길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의 자화상, 신경질적으로 솟아오르는 사이프러스 나무를 통해 화가의 내면을 드러냄으로써 전시는 단순한 영상의 나열을 넘어선다.

고흐는 극도의 불안 속에서 자신의 귀를 잘랐으나, 이 전시를 완성하는 것은 청각이다. 푸치니·비발디 등 클래식 음악뿐 아니라, 마일스 데이비스 등 재즈까지 끌어안는다. 프로방스의 햇빛을 캔버스에 파종하는 대표작 <씨 뿌리는 사람>과 함께 울려 퍼지는 음악은 미국 블루스 가수 재니스 조플린의 <코스믹 블루스>다. “또 다른 외로운 날을 통과해 내 꿈을 거세게 밀어붙인다”고 가사가 절규할 때, 그림 중앙의 태양이 천천히 확대되며 거대한 씨앗을 은유한다. 미디어아트만이 구현할 수 있는 경이로움이다.

사람들이 전시장 내 벤치에 앉거나 아예 드러누워 미광욕(美光浴)을 한다. 신난 아이들이 맘껏 뛰논다. 빛은 아무리 건드려도 훼손되지 않는다.



〈르네 마그리트 특별전: 인사이드 마그리트〉 전시장 전경

빛의 몽환

〈르네 마그리트 특별전: 인사이드 마그리트〉 | 4. 29~9. 13 |

인사센트럴뮤지엄(서울)

상상이 일상을 추방한다. 벨기에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1898~1967)를 첨단 기술로 구현한 멀티미디어 체험형 전시로, 이탈리아 영상디자인 스튜디오 페이크팩토리가 감독하고 브뤼셀 마그리트 재단이 직접 기획에 참여한 첫 아시아 전시다. 지붕 위 비처럼 쏟아지는 중절모 차림 신사들(〈골콩드〉), 머리에 천을 뒤집어쓴 채 키스하는 남녀(〈연인들〉) 등 무의식의 건너편을 화폭에 옮겨온 르네의 상상력으로 약 2,000m²(600평) 규모 전시장을 꽉 채웠다.

백미는 330m²(100평) 규모 ‘이머시브 룸(Immersive room)’이다. 소리와 움직임을 얻은 그림 160여 점이 40분간 일렁이는데, 구름을 머금은 눈알이 바닥을 흘러다니고, 미지의 인간이 땅에서 석상처럼 솟아오르는 파스텔 색감의 형상들이 피아노 야상곡과 이츠하크 펠먼의 바이올린 선율과 뒤섞인

다. 저택의 낮과 밤을 한 장면에 담은 ‘빛의 제국’ 시리즈가 유선형의 벽면에 투사되는 ‘미러 룸’도 볼거리다. 특유의 하늘빛과 구름과 저택의 실내등이 거울 필름으로 마감한 바닥까지 번진다. 고호가 강렬한 전율로 두피를 자극한다면, 르네는 꿈속에서 차를 마시듯 차분한 몽환으로 안내한다. “내 작품이 전하려는 것은 한 편의 시(詩)”라고 생전의 르네는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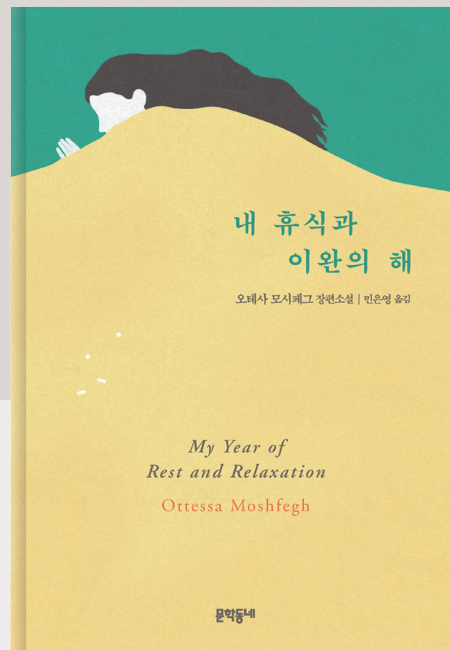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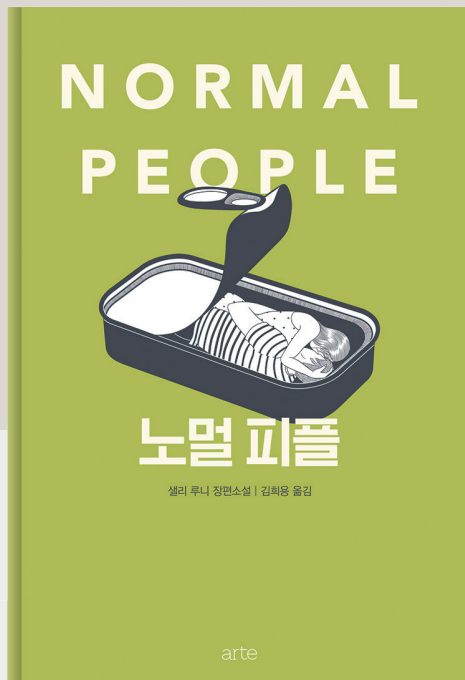
전시장 복도를 따라 마련된 다수의 스크린 회화와 복제화를 통해 작가의 생애를 일별할 수 있다. 영화광이었던 작가가 직접 촬영하고 출연한 영상을 상영하는 ‘시네마 룸’, 작가가 매료됐던 거울을 활용해 가상과 비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미스터리 룸’, 관람객 눈·코·입을 자동 인식해 작품 속 얼굴과 즉석 합성해 주는 ‘플레이 마그리트 존’, 파이프 담배 그림으로 잘 알려진 〈이미지의 배반〉과 방 하나를 채우는 거대 꽃사과 그림 〈청취실〉을 대형 조형물로 재현한 포토존까지 다채롭다. 개막 열흘 만에 관람객 1만 명을 넘기며 인사동 명물이 된 이유다.

글 정상혁_《조선일보》기자 사진 제공 조선일보DB

밀레니얼 세대의 고독과 사랑

책 《노멀 피플》과 《내 휴식과 이완의 해》

누구나 통과해 온 시간이지만, 우리는 청춘을 잘 알지 못한다. 과거의 기억은 미화되기 마련이고, 그 시절의 고통도 외로움도 흘러간 사랑도 반짝거리는 좋은 추억으로만 남아버린다. 밀레니얼 세대를 그린 소설로, 세계적인 화제를 낳은 20대의 두 젊은 작가가 있다. 한국에 갓 상륙한 그 소설을 소개한다.





지긋지긋한 우리의 관계도 사랑일까

《노멀 피플》 | 샬리 루니 지음, 김희용 옮김 | 아르테(arte)

1991년생, 맨부커상 후보작, '밀레니얼 세대의 데이비드 샬린저'란 수식어. 표지에 줄줄이 적힌 찬사만으로도 압도되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이 소설은 찬사에 기대지 않아도 충분히 놀라운, 새로운 세대의 전혀 다른 방식의 연애소설이다.

18세부터 22세까지, 고교에서 시작된 4년간의 지긋지긋하고도 꿈울 수 없는 인연에 관한 이야기인데 설정은 상투적이다. 엄청난 부잣집 딸이지만 외모에 자신 없고 성적은 톱이고, 아웃사이더인 메리엔, 메리엔의 집에서 청소를 하는 싱글맘의 아들인 소위 노동자 계급의 축구부 주장인 코넬. 주민들 서로 속속들이 대소사를 아는 작은 마을에서 둘은 부끄러워 서로의 관계를 숨기며 가까워진다. 이른바 잠은 자지만 사귀지 않는 사이. 메리엔과 코넬 사이에 흐르는 계급 격차는 완벽한 솔메이트인 둘 사이를 결코 접착시키지 못한다.

아일랜드 더블린의 트리니티 대학에 진학하며 고향을 떠나지만, 둘은 전혀 로맨틱하지 않고 우연의 마법조차 작동하지 않는 질긴 인연을 이어간다.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도 서로에게서 찾는 위로와 위안을 결코 대체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불안한 대학 생활 동안 이들은 특별해질 수 없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지도 않고, 마치 부유하듯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뿐이다.

사랑을 갈구하지만, 경제적 불안이 영혼을 잠식하는 담벼락(페이스북) 세대의 세태는 1991년생의 젊은 아일랜드 작가인 샬리 루니가 그리면서 더욱 특별해진다. 경제적 붕괴를 겪었고, 아일랜드공화국군(IRA)의 혁명 서사가 언제나 떠도는 동시에 상류층 자녀들이 가득한 캠퍼스. 요즘 세상에선 아무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예술과 학문 속으로의 도피는 이들이 선택하는 출구 중 하나다. 여기에 정치적 냉소가 아일랜드 작가의 소설에서 빠질 수 없으니, 바로 이 지점에서 동시대 청춘의 자화상을 그려낸 탁월한 소설이 탄생한 것이다.

밀레니얼에게 가장 값싸고 쉬운 일은 그저 육체 관계를 맺는 일이고, 가장 값비싼 일이자 고통스러운 일은 가족을 건디는 일이자 가족이 되는 일이다. 그 때문인지 소설 속 모든 가족은 이상적이지도 행복하지도 않다. 두 사람에게 고독은 삶의 상수이며,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랑뿐이다. 내가 평범해지지 못할까 늘 불안하고, '노멀 피플'이 되고 싶어 물속에서 발을 허둥대는 시간. 그 시간을 이 소설은 탁월하게 묘사해 낸다.

나는 1년간 잠을 자기로 했다

《내 휴식과 이완의 해》 | 오테사 모시페그 지음, 민은영 옮김 | 문학동네

“악물중독 같은 거 아니야. 잠시 쉬고 있는 거야. 지금은 내 휴식과 이완의 해거든.”

밀레니얼 세대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사랑만이 아니다. 우울에 관해서라면, 이 소설보다 탁월한 작품은 만나기 힘들 것이다. 1981년생인 이 젊은 작가는 첫 장편 《아일린》으로 펜/헤밍웨이상을 수상했고, 맨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2018년 발표한 이 두 번째 소설에 쏟아진 찬사도 만만치 않다.

잠에서 깬 때마다 밤이건 낮이건, 24시간 영업을 하는 잡화점으로 가 대용량 커피 두 잔을 사서 크림과 각설탕 6개를 넣은 후 첫 번째 잔은 아파트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숨에 들이켠다. 두 번째 잔은, 크래커와 함께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한 후 천천히 마신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물 수거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모든 공과금은 자동 납부로 돌리고, 재산세도 1년치를 선납했다. 눈을 뜨면 음식을 먹고 비디오를 보면서 다시 잠들기를 반복하며 하루에 두세 시간만 깨어 있다. 샤워조차 일주일에 한 번쯤 했다. 예금 계좌에는 2~3년은 살 만큼 충분한 돈이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도입부부터 깜짝 놀라게 하는 주인공은 26세 무렵 '동면'에 들었다. 유산을 물려받고, 좋은 학벌과 아름다운 외모 등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주인공이지만 세상을 향한 냉소와 염세로 일상과 관계에 지루함을 느낀다. 마침내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일상의 루틴을 촘촘하게 짠 뒤 1년간 동면에 들어가는 계획에 착수한다. 잠에서 깨어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낮이나 밤이나 내내 잤고 중간에 두세 시간 정도만 깨어 있게 되자 '참 좋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만 염세의 늪에 빠진 건 아니다. 신경안정제 처방을 남발하고 신비주의 사상에까지 경도된 정신과 의사 터틀, 걸모습은 흰칠한 금융인이지만 연애 관계에서는 불쾌하고 일방적인 성행위만 요구하는 전 남자친구 트레버도 정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소설은 인물들의 뒤틀리고 병적인 면모를 보면서도 웃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타는 섬세한 심리 묘사와 어딘지 뒤틀리고 어둠의 아우라를 뿜어내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인공이 라니.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소설이 아닌가. 무엇보다 읽다 보면 부러워지기까지 한다. 우리에게 과연 '휴식과 이완의 해'라는 게 있었든가.

글 김슬기_《매일경제》 기자 사진 제공 아르테(arte), 문학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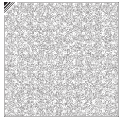
“너 자신을 알라”고는 하지 마세요



한 점집 앞에 걸려 있는 흰 깃발과 붉은 깃발

요즘도 길을 가다가 대나무 가지에 흰색 천과 붉은색 천이 나란히 매달려 하늘 쪽으로 치솟게 세워둔 걸 보면 그냥 지나치게 되지 않는다. 대나무 깃대를 따라 아래로 눈길을 내리면 깃발이 말하는 뜻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소박하거나 더러는 가난한 느낌의 집 기둥에서 커다란 문패를 읽게 되니까. '방금 신 내린 처녀 무당집' '30년 지리산 도사' '작두 장군' '계룡산 산신' '천수보살' '여신도사' '천신엄지보살' '백호동자' 등등. 절 표시를 앞세워 암자란 느낌을 주는 간판도 있다. 간판만 있기도 하지만 하는 일을 자세히 써놓은 집도 있다. 사주, 궁합에 성명, 재물, 사업 등의 운을 보고 여러 가지 굿도 한다는 등등.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운과 불행과 슬픔과 고난을 살살이 뒤져 미리 알려주고 해결해 주고 아픈 곳은 마음이든 몸이든 치료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새마을운동으로 굿거리를 미신으로 여겨 징과 장구 소리만 나면 경찰이 출동해 심할 땐 굿상을 부수고 무당을 잡아가던 시절엔 기복(祈福)을 알리는 깃발이 요즘처럼 당당하지 않았던 것 같다.

두어 달 전 어느 날 강북구의 어느 거리에서 4층인가 하는 빌딩 맨 위층에 점집과 교회가 나란히 있는 게 신기해 보여 잠깐 쳐다본 적이 있다. 세상은 생물들이 사는 곳이니 변화가 잠시 잠깐도 멈추지 않는다. 세상의



몸체를 이루는 세포 하나로 살아갈 것이 분명한 나. 혹은 낡아서 닳아서 쓸모가 끝나서 떨어질 게 분명한 살비듬 같은 나. 혹시 불안은 이런 현상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런 현상을 인정하기 싫어서 생기는 게 아닐까? 나는 한때 정말 방앗간 곁을 지나는 참새처럼 점집만 보면 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억누르지 못했다. 어느 곳의 누가 용한지, 그런 정보도 교환하고 멀리 찾아가 본 적도 있다. 모두 불안과 욕망 때문이었다. 그들이 나의 불안을 없애고 욕망은 언제 이루어질지 ‘족집게’로 말해 주길 바라며 적지 않은 ‘복채’를 내고 보살, 도사, 선녀, 동자, 천신, 산신, 도령... 앞에 조아려 앉았다.

사실 그런 집을 들어갈 땐 뒤가 좀 켕기긴 했다. 뗏뗏하지가 않아서 쫓기는 기분으로 성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허름한 단층의 문간방일 때도 있고 커다란 한옥을 쓰는 이도 있었다. 좁고 가파른 계단 아래로 내려가 수없이 자물쇠를 갈아 단 흔적이 가여울 정도로 덕지덕지한 문을 밀고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과연 용할까? 다 맞힐까? 기대와 의심으로 마음이 출렁인 건 마찬가지였다.

진한 향이나 양초 타는 내가 물썬 코를 찌르는 곳으로 들어가면 대개 한복을 입은 여성이 반기거나 순식간에 나를 파악하기 위한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지는 평범하지 않은 인상의 여성(남성)이 있거나 했다. 나는 비굴할 정도로 공손하게 앉아 그가 시키는 대로 복채를 놓고, 그가 나를 위해 신기(神氣)를 올리는 간단한 주문을 외는 동안 침묵한다. 주문을 마친 그가 무엇이 궁금해서, 혹은 무엇이 답답해서 왔느냐고 물으면 나는 줄줄이 대답하는데 그 대답 속엔 그가 묻지도 않은 말까지 포함됐다는 걸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집에 더는 가고 싶지 않은 뒤에야 깨달았다. 나의 바람은 그가 내 불안과 욕망을 한시 바빠 알아맞히는 것이었다.

친구에게도 못 하는 말을 다 해버린 뒤에... “바라는 대로 될까요?” 절박하게 묻고 그의 반응을 기다린다. 그가 느리게 대답하면 혹시 내 질문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봐 나도 모르게 총알처럼 다시 한번 말한다. “저는요, 어찌고저찌고.”

그는 말없이 쌀알을 굴린다거나 엽전을 이리저리 뒤집는다거나 종이 질이 좋지 않은 공책에 그림 같은 글자를 쓴다거나 무어라고 중얼거린다거나... 이런 그의 행동 속에 내 운명이 콧김에도 날리는 먼지처럼 이리저리 흩날렸으리라.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조상님 산소를... 산 모양이... 둥그런 데다 썼을 텐데...”

아, 신통해서 저런 것까지 보이냐 보다, 나는 어느 곁에 그를 존중하기에 이른다.

그가 내 맘을 읽은 걸까? 내가 꼭 듣고 싶은 말들을 콧김 찍어서 말해준다. 직업과 자식과 또 바라는 것들에 대해 “조상님이 도와서 다 잘 풀린다!”는 것. 나는 독한 것들에 취하듯 점괘에 몽롱해진다. 수많은 동업자 중 하나이니 내 신상이 알려질 염려도 없고 내 욕망이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말해주니 안심이며 ‘조상’의 도움이 운명에도 나와 있다니 기쁘기 그지없다. 이러는 사이에 내 정신은 허약할 대로 허약해지고 자존감은 그림자도 남지 않은 걸 눈치채지 못한 채.

나이가 꽤 든 뒤에야 도사, 거사, 보살, 선녀, 산신 등이 사는 점집을 드나들지 않게 됐다.

온전히 나이 덕이다. 늙는 것이 준 선물. 저절로 욕망이 가라앉아 대체로 평화로워졌을 때, 삶에 고통과 불안, 슬픔 등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묘미를 어렵풋이나마 깨닫게 됐을 때, 인류 최초의 점괘라는 “너 자신을 알라”에 가까이 간 기분이다.

글·사진 이경자_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소설가

삶 속에서 도서관을 짓는 일에 관하여

인간의 이타심이 발하는 순간



타인을 위한 조그마한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겠냐고 말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돼버렸다.

어쩌면 '이기심'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이타심'은 요원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나의 행복'을 우선으로 해 살라는 말이 세상의 격언처럼 된 지 오래지만, 이상하게도 '타인의 행복'을 추구할 때, 나의 행복도 함께 올라간다. 마음속에서 간질간질하고 따뜻한 게 생겨나는 일, 그것은 타인의 행복을 생각하는 일이고, 그런 마음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다 보면 무엇이든 더 나아질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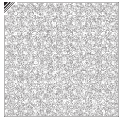
영화 <쇼생크 탈출> 중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일

이미 고전이 된 영화 <쇼생크 탈출>은 누명을 쓰고 수감된 한 남자가 쇼생크 수용소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가 지략을 발휘해 결국 20여 년 만에 탈출하는 과정 자체가 무척 흥미진진하고 통쾌한 영화지만, 한편으로는 주인공인 앤디(팀 로빈스)가 수용소 안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자 투쟁하는 과정 또한 참으로 인상적이다. 그는 수용소 생활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대다수의 수감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지성과 감성, 의지로 그곳에서의 삶을 바꾸어나간다.

어디에서의 삶도 다르지 않겠지만, 수용소에서의 삶도 대개는 자기 욕망을 채우고 이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과정으로 점철돼 있다. 성



욕을 채우고자 다른 수감자를 강간하는 사람이라든지, 내기를 하면서 담배를 얻거나, 그 속에서도 자기 것을 얻고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 일반적인 수감자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주인공 앤디에게는 좀처럼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그도 홀로 탈출을 계획하면서 교도관이나 교도소장을 이용하고, 다른 수감자를 통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도 한다. 그런데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보다는 같이 수감돼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한 무언가를 한다.

가령, 이 영화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지붕 위 페인트칠 장면에서, 앤디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교도관에게 다가간다. 당연히 교도관은 그를 위협하면서 빨리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하지만, 그는 자기가 은행에서 일했다면서 그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신 같이 일하는 수감자들을 위해 맥주 몇 병씩만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한다. 교도관은 그것이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채고 그에 응한다. 그리고 앤디는 해 질 무렵 지붕에서 맥주를 마시며 즐거워하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미소 짓는다. 절망적인 수용소 생활이지만, 그는 그렇게 수용소 바깥에서나 있을 법한 일상을 만들어낸다. 이웃 사람들과 함께 지붕에 페인트칠을 하고 모여 앉아 맥주를 마시던 어느 저녁의 일상을 그들에게 잠시나마 돌려준 것이다.

한편으로 그는 교도소 내 도서관이 별 볼 일 없다는 걸 깨닫고 끊임없이 국회에 편지를 보낸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교도소장의 세금 관리를 도와주면서 그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인데, 결국 몇 년간 계속 편지를 쓴 덕분에 지원금을 얻어내고 교도소의 도서관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곳으로 만들어낸다. 그러자 아무도 찾지 않던 도서관에 수감자들이 찾아가고, 그는 그들을 가르쳐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는 일도 도와준다. 이렇게 보면 그가 대단한 이타심을 발휘하는 성인군자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그가 자기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돕는다고 오해할 수 있다. 오히려 그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든다.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보다 자기를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주변 환경을 바꾸어내고 자신의 분위기로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자기의 지성과 감성으로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간의 모습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타인을 위한 마음이 나를 지켜준다

아마 이 영화의 중심은 쇼생크 탈출 과정에 맞춰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앞서 적은 장면들보다도, 그 과정이 더 흥미진진하게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기도 한다. 그런데 나는 그런 과정 못지않게, 앤디가 수용소 안에서 만들어가는 생활과 그 속에서 얻는 행복에 더 눈길이 갔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인간이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행복해지기보다는 초라해지거나 왜소해질 뿐이고, 반대로 자신이 주변에 끼칠 영향을 고민하며 그로부터 의미를 얻고자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타심을 발휘하는 일은 어찌지 인간의 본성을 다소 거스르는 역지스러운 일이고, 손해 보는 일이고, 자기의 행복을 양보하는 일처럼 생각된다. 그런데 사실 이타심과 이기심이 조화를 이루는 어느 지점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행복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요즘 나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아내와 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고,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내가 돌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 또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매일 새벽 늦게 잠들고, 좀처럼 쉴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나날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오직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이유 덕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내가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이렇게 정신없는 나날을 살아내고 있다면, 금세 회의적인 마음이 들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겐 온몸 다 바쳐 사랑받는 아이와 아내가 있고, 이 나날은 그렇게 나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위한 것이고, 아이를 위한 시간이고, 아내를 위한 일이며, 그 마음이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이 든다.

청년 시절, 어느 때는 삶은 오직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야만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갈망하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마음은 줄어들면서, 나의 삶이 나를 위한 것이자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되고, 때로는 그게 더 중요하며, 그렇게 삶이 넓어져가는 것이 더 나은 행복을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내 삶에 앤디가 지붕 위에서 동료들을 바라보던 것 같은 장면이 많아진다면 좋겠다. 그가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만든 수용소 안의 도서관 같은 것을, 나도 내 삶에 지어낼 수 있다면 좋겠다.

글 정지우_문화평론가,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저자

번화가 옆, 가장 보통의 공원

내게로 오는 공원 ② 동교 어린이공원



알고 보면 서울에는 크고 작은 공원이 많다.

주거지역 한편에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는 공간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기구가 들어선 공간 입구에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라는 안내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주말에 나들이객으로 북적이는 큰 공원도 좋지만, 언제든지 편한 옷을 걸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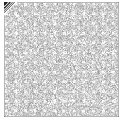
마음 편히 나가 바람을 쐬 수 있는 작은 공원은 동네 친구처럼 소중한 곳이다.



연남동 경의선 숲길 인근에 자리한 동교 어린이공원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은 절반만 믿어도 좋다. 신이 아닌 인간이 어떻게 상대를 한눈에 딱 보고 파악할 수 있을까. 물론 살다 보면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도 애써 믿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충분히 알게 된 다음에 판단

해도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엇보다 알면 알수록 상대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또 다른 만고불변의 진리가 항상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이나 장소, 아니 어떤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중에는 공원도 있다.



‘동교 어린이공원’은 미안하게도 그 자체로는 너무나 평범한 그냥 동네 공원이다. 길에서 흔히 마주치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과도 같다. 면적은 약 980m², 비교하자면 경복궁 근정전보다 조금 작은 정도다. 막상 가보면 별다른 점도 없다. 이런저런 어린이 놀이 시설, 즉 미끄럼틀, 그네, 모래사장, 그리고 다치지 말라고 깔아놓은 탄성 바닥재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보아도 색상은 알록달록하고 형태는 조금 유치하다. 명칭은 어린이공원이지만 만든 사람은 어른인데, 이런 미감은 정말 어린이가 좋아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린이에 대한 어른의 관습적인 환상일까.

여기까지 보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원이어서 첫인상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과 별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그냥 훑듯 보고 지나친다면... 아마 뭔가 놓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공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시외버스를 탔다가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의외의 이야기꾼일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서.

차려입지 않은 동네 주민처럼

저에 대해 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아마 자료가 별로 없을 겁니다. 뭐, 저야 그냥 평범한 동네 공원이니까요. 하지만 아마도 그런 평범함이 저의 매력인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특별한 공원이 몇 군데 있는 것보다는 저처럼 평범한 공원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요?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대부분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차려입고 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냥 각자의 하루 일과 중 잠시 들르는 곳일 뿐이죠.

저희 동네에 진짜 유명하고 특별한 공원은 따로 있잖아요. 여기서 바로 건물 한두 채만 넘어가면 있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긴 공원이라고 불리는 경의선 숲길의 연남동 구간, 일명 ‘연트럴파크’죠. 거기도 물론 동네 사람들이 가기는 하지만 주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으레 다들 조금 차려입고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지요. 여기는 달라요.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만 올까요? 당연히 보호자들도 어린이와 함께 오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공원이기도 해요. 보세요, 저기 벤치에 앉아서 책 읽는 분들. 아마 바로 옆에서 아이가 놀고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저는 사람들이 사는 곳 가까이에 있어요. 이 근처만 해도

연트럴파크는 북적거리지만 경의선 숲길을 따라 연남동 안쪽으로 한 블록만 더 들어가면 대부분 주택가예요. 심지어 조용하고 엄숙하기조차 해요. 오래된 아파트도 많아요. 원래는 기차길 옆이어서 주거 조건이 별로 좋지 않았을 텐데 그 기차길이 공원이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연트럴파크를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 저 앞의 아파트들은 2000년대 초반에 지은 것인데, 연트럴파크 조성 사업이 2016년에 완료됐으니까요. 거기 사는 아이들도 물론 여기 와서 놀겠죠? 그러니까 제가 멀리 있지 않고 사람들 곁에 있는 것부터가 저 나름의 특별한 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첫인상과는 다르지요?

곁에 있어 더 소중한 ‘생활권 공원’

이런 공원들은 알고 보면 법적 지위가 탄탄하다. 일단 ‘공원’이란 이름 자체가 아무 데나 붙이는 것이 아니다. 공원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도시계획 시설이며, 그 지정과 해제는 까다로운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하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세한 법적 정의가 제시돼 있기도 하다. 그 역사도 제법 오래돼서, 이미 1967년에 명동에 있던 어린이공원의 공원용지 지정이 폐지될 때는 그야말로 온 나라의 언론이 들끓을 정도였다.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흔히 보는 공원들은 이처럼 어린이공원이거나 소공원 또는 근린공원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을 묶어서 ‘생활권 공원’이라고 한다. 이와 별도로 문화공원·역사공원도 지역에 따라 생활권 인근에 조성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교 어린이공원 인근 반경 1km 정도 지역을 살펴보면, 은행 어린이공원, 느티 어린이공원, 잔다리 어린이공원, 다솜 어린이공원, 윗잔다리 어린이공원, 서교 어린이공원 이외에도 홍익 문화공원 등 작은 공원이 여럿 있다. 물론 그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큰 공원들이 일부러 차를 타고 찾아가는 곳이라면, 이들 생활권 공원들은 걸어서 간다. 즉 공원이 스스로 사람에게 온 것이다. 그러니 겉보기의 평범함으로 가볍게 생각할 대상이 아니다. 멀리 있는 크고 근사한 공원보다 내가 사는 곳에 있는 보통의 작은 공원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글·사진 황두진_건축가, 황두진건축사사무소 대표

끝끝내 맞잡은 슬픔의 연대

신수원 감독의 <마돈나>



끝내 생채기를 내는 예술이 있다. 잔인하고 무례하게 어두운 세상을 보여준다.

상처 난 살갗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나쁜 감성이 그 속에 담긴다.

나빠서가 아니라 상처 받아서 거칠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나쁜 정서를 담은 예술은 그런 소수자의 정서와 이야기를 품어낸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선부른 동정을 감히 허락하지는 않는다. 건조하고 거친 표현과 까끌거리는 감성이 아프지만,

정서적 학대가 아닌 공감을 통해 얻는 카타르시스는 순진한 감동과 다른 감정을 만들어낸다.





잔인한 슬픔에 빠지다

신수원 감독의 2012년 작 <명왕성>은 발견과 같은 영화였다. 있을 법하지 않게 연출된 상황을 통해 개선될 여지없이 되풀이되는 입시 지옥의 처참한 속내를 고스란히 현실로 소환한다. 신수원 감독은 비밀 스터디 그룹과 사제폭탄, 살인, 납치라는 다소 극단적 상황 속에 덜 자란 아이들을 던져놓고 끝내 파국에 이르게 만든다. 하지만 아이들의 슬픔과 그들에 대한 동정의 정서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 시니컬해 보이는 날 선 감성 속에 약자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숨어 있는 셈이다.

감독의 2014년 작 <마돈나>에서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은 미성년자들의 세상보다 더 잔혹한 성인들의 세상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훨씬 더 자극적이고 공격적이다. 외면하지 말고 눈 돌리지 말고 끝끝내 들여다보라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것 같은 <마돈나>는 자극적이고 불편한 장면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늘하고 숙연한 슬픔에 빠지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감성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끝내 눈 돌리지 못하고 보고 만 불편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여기, 우리 곁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VIP병동의 간호조무사 해림(서영희)과 의사 혁규(변요한)는 병원에서 심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 철오를 돌본다. 철오의 아들 상우(김영민)는 아버지의 재산을 얻기 위해 억지로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애쓴다. 어느 날, 미나(권소현)가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실려 오면서 인물들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긴다. 미나는 연고도 없는 만삭의 임신부다. 상우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해림에게 미나의 가족을 찾아장기 기증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제안한다.

미나, 해림 혹은 약자들의 대립각으로서 재벌 2세인 상우는 힘과 돈과 권력으로 사람의 목숨을 흥정할 수 있는 강자로 표현된다. 병원이란 폐쇄적인 작은 사회 속에서 보호받고 지켜내야 할 사람이, 힘없고 약한 자가 아니라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회적 함의와 암묵적 동의는 버젓이 존재한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사람들의 태도는 미나를 통해 투명한 유리처럼 고스란히 투영된다.

미나의 과거를 쫓으면서 해림은 그녀를 향한 동정심과 심리적 연대, 그리고 결코 자신의 삶과 다르지 않은 한 여인의 슬픔을 마주한다. 약자들의 연대의식은 미약하지만 희망의 지푸라기 한 줌과 같다. 하지

만 현실 속에서 그들의 삶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들이 모질게 겪어온 운명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잔인한 현실은 높처럼 그들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마돈나, 어쩌면 우리의 이름

가장 낮은 곳에서 겨우겨우 살아온 미나의 과거를 통해 관객들이 만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사회가 힘없는 자들을 대하고 바라보는 시선과 편견이다. 그래서 '미나' 혹은 '마돈나'는 다른 꿈을 꿀 여유도, 벗어날 자신도 없이 진창에 그저 주저앉아버릴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대변하는 이름이 된다. <마돈나>는 세상에는 결코 노력하지 않아서도 비겁해서도 아닌,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법이란 사실을 강변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들여다본다.

앞서 <명왕성>을 통해 학교 내 최상위층의 계급 구조를 풍자적으로 보여준 신수원 감독은 <마돈나>의 VIP병동을 통해 가지지 못한 자는 철저하게 짓밟히고야 마는 냉혹한 현실을 은유한다. 마치 희망 자체가 없는 것 같은 현실에서 신수원 감독은 소소한 판타지를 통해 무너진 사회 속에서도 작은 연대를 통해 희망을 말할 수 있다고 속삭여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나를 향한 해림의 동정심은 강한 연대가 돼 변화로 나아가진 못한다.

미나가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많이 한 말, 버릇처럼 입에 달고 산 말은 "죄송하다"는 사과였다. 사회적 폭력에 시달리고 늘 구박받지만 정작 미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넨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늘 짓밟히지만 누구에게도 사과받지 못하는 약자의 삶, 그래서 늘 최선을 다했다는 미나의 말은 슬픔의 칼날이 돼 우리들 마음에 깊숙이 박힌다. 영화 <마돈나>는 꾸역꾸역 그렇게 슬픔의 구멍을 들여다보고, 슬픔으로라도 연대하라고 한다. 끝끝내 그렇게라도 맞잡아야 한다고...

<마돈나>(2014)

감독 신수원

출연 서영희(해림 역), 권소현(미나 역), 김영민(상우 역), 변요한(혁규 역), 고서희(현주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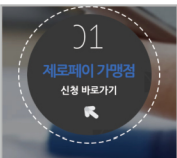
글 최재훈_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결제수수료 0%, 소득공제 40%

간편하다!

제로페이 서울

PC·스마트폰으로 가맹점 신청도 간편하게!

- 1 제로페이 홈페이지 검색**
zeropay.or.kr
 
※ 유사 사이트(zeropay.co.kr) 주의
- 2 회원가입**
'가맹점 등록 확인' 조회 ▶ '신규 가맹점 등록 신청'
- 3 사업자 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완료**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입력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업로드

소비자는 QR코드로 결제도 손쉽게!

- 1 제로페이 참여 사업자의
결제 앱 설치**
·설치 후, 결제계좌 등록
·이미 설치된 사용자는 기존 앱 사용

- 2 간편결제 앱에서
가맹점 QR코드 촬영**
- 3 결제 금액 및
비밀번호 입력확인**



소상공인 돕고!
소득공제 받고! **제로페이서울**
※ 가맹점 신청: zeropay.or.kr





WEBZine⁺



주머니 속 문학잡지 [비유]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책장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view.sfac.or.kr



연극 전문 웹진 [연극in]은 연극을 다양한 감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현장과 무대, 공연하는 예술가를 관객과 매개합니다.

webzine.e-st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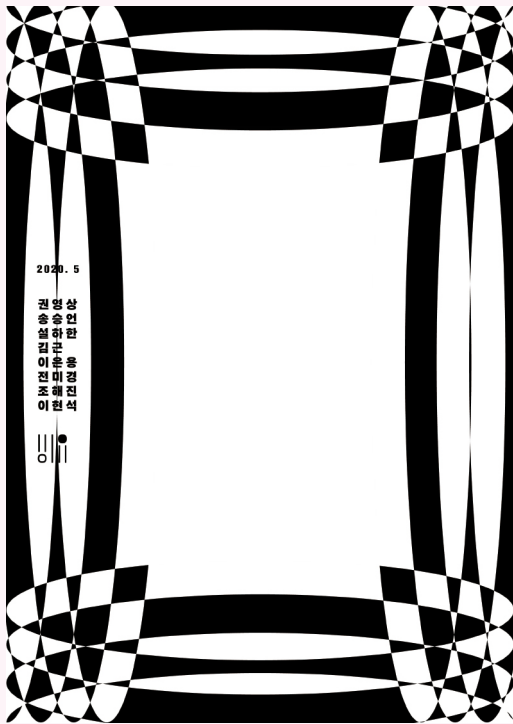


[춤in]은 무용 전문 웹진으로 정보와 이슈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용계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choomin.sfa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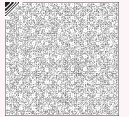
비극과 개인



〈쓰다〉 29호 포스터

28호부터 30호까지의 〈쓰다〉는 ‘초대 특집’으로 꾸려집니다. 갓 등단해 작품 활동을 시작한 신인 작가가 좋아하는 선배 작가를 추천하여 〈쓰다〉의 지면으로 초대하는 기획입니다. 기성 작가가 신인을 추천하는 기획은 많이 보았으나 반대의 경우는 접해본 적이 없어서 이 기획의 신선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신인 작가에게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어떤 신인의 작품이 마음에 들면 꼭 등단 소감을 찾아봅니다. 이 작가가 어떤 작품을 좋아하는지, 어떤 작가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니까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인 작가의 작품과 그가 영향 받은 작가의 작품을 한 지면 안에서 볼 수 있다니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뻐했습니다.

추천에 응하는 선배 작가들의 메일에 ‘고맙다’는 말이 꼭 적혀 있었습니다. 추천하는 후배의 마음과 추천의 의미를, 추천받은 분들이 모두 헤아리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후배의 추천을 받는 일은 선배로부터의 격려와는 분명 다른 기쁨일 것입니다. 28호와 29호 그리고 30호의 작품 아래에서 **#작가의 작가** 해시태그를 발견하시면 꼭 눌러보세요. 권위 바깥에서 서로의 작품을 격려하는 특별한 작품들을 모아 보실 수 있습니다.



29호에 실린 이현석 소설가의 작품은 간호원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날을 배경으로 당시 광주의 급박한 상황을 간호원이라는 개인의 시선을 통하여 포착해 내는 것입니다. 세월호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4월의 지면에서 광주의 참혹한 5월을 읽어 내려가는 일이 고통스럽지 않을 리 없습니다. 특히 작가의 태도가 절망이나 체념과는 동떨어져 있기에 저는 독서가 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작가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기어이 그들을 살려내려는 주인공 ‘개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4월의 세월호를 떠올리면, 그날의 비극을 텔레비전 앞에서 무력하게 지켜보던 개인으로서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나라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먹었으나 간호전문학교를 다니는 동안 독일은 간호원 수급을 멈췄고 물거품이 된 꿈에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정혜는 이곳에 남기로 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사명감 때문이 아니었다.

어떤 책임감 때문도 아니었고 어떤 숭고함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러니까 오후 1시 10분경, 갑작스런 총성에 정혜가 몸을 벌떡 일으켰을 때, 끊임없이 이어지는 총성에 일제히 침상 아래로 내려간 간호원들이 바닥에 엎드린 채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중략)…… 의료진들 사이로 제 몸을 밀어넣어 아래로 내달린 까닭은 그 순간 그곳에서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현석 <너를 따라가면> 부분

주인공 정혜는 전남대병원에서 간호원으로 일합니다. 위로는 언니와 오빠, 아래로는 남동생 사이에 낀 셋째 딸로 부모의 관심 바깥에서 자랐습니다. 마음 둘 곳 없던 정혜는 동네에서 제일 평판이 안 좋은 한 ‘언니’에게 깊은 애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언니의 영향으로 간호원이 됩니다. 어쩌면 정혜의 삶은 소외받는 여성 서사의 전형입니다. 그런 그녀가 5월의 광주를 온몸으로 겪어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이 모두의 삶을 망가뜨리려 하는 순간, 특별한 능력으로 자기와 주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특별한 능력이란 “그 순간 그곳에서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을 찾지 않는 ‘일상적 성실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발휘하는 특별함에서 삶을 지켜낼 힘을 얻습니다. 바로 주인공 정혜 같은 사람에게서요.

우리 일상에 비극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를, 평범하게 선한 사람들이 매일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혜와 같은 사람이 귀한 대접을 받고, 이런 삶이 더 조명되기를 바라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극을 함께 겪어낸 사람, 우리의 일상을 복구하려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 일상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의 이야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닮은 개인을 통해 사건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슬픔을 더 오래, 더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글 김잔디_웹진 [비유] 편집자 사진 제공 웹진 [비유]

미래의 우리들에게 보내는 편지

극단 52Hz '서치라이트 미래도시: 입정동편 <플랫폼SW3-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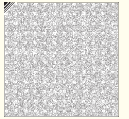
서치라이트 미래도시: 입정동편 <플랫폼 SW3-123> 공연이 진행되는 모습

오랜만에 찾은 세운상가는 재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재개발이라는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이곳에서 3개월 동안 지역을 경험한 기획자들이 '세운개장'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전시·탐험·연극·게임·워크숍 등 총 8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됐는데, 그중 하나인 '서치라이트 미래도시: 입정동편 <플랫폼SW3-123>'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수정다방과 입정동 일대를 배경으로 한 이동형 연극이다.

제작진은 공연 전에 예매 관객을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개별 문자로 꼼꼼하게 전달했고, 현장에는 살균 스프레이와 손 소독제를 비치해 두었다. 더불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관객의 체온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도 수집했다. 최대한 안전수칙을 반영해 공연이 진행됐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세운상가를 거처간 '사람들'의 이야기

<플랫폼SW3-123>의 이야기는 지구에서 살기 어려워진 미래의 인류가 생존을 위해 발전시켜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식민지행성 SW3-123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시간의 균열로 SW3-123으로 가는 열차의 선로가 끊기고, 시간의 선로를 고치기 위해서는 부품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장과 시인 '타라'의 안



내에 따라 열차의 승객이 된 관객들은 입정동 일대를 걸으며 부품을 찾아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세운상가에 살았던 과거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한복을 입고,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성매매 여성, 성인비디오를 몰래 파는 상인, 공터에서 허름하게 생활하고 있는 기술자 장인, 그리고 귀머거리 아이. 극단 52Hz는 1950년대부터 2020년 현재까지 세운상가를 거쳐 간 이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극적으로 상상해내 현재로 소환했다.

세운상가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다. 미군 폭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터로 비워놓은 곳에 무질서한 판자촌이 형성되고, 그곳은 전쟁 이후 생계 수단으로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이 모이면서 거대한 성매매 집결지가 됐다. 1966년 세운상가의 착공이 시작됐고, 2년에 걸쳐 완공에 이른다. 그러나 애초에 기획된 유기적인 건물 연결이 불가능해지면서 반쪽짜리 공사에 그치고 만다. 기술자, 유통업자 등 다양한 산업군이 유입되며 한때 경제 호황을 누리지만, 서울 시내의 개발과 업체들의 이전이 계속되면서 점점 낙후되고 만다. 2020년 현재, 서울시가 '도시재생'이라는 명목으로 전면 철거와 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가공의 인물은 귀머거리 아이인데, 이 아이는 판자촌에서 성매매를 하던 여성의 아이와 동일 인물이다. 아이는 미래의 인류를 만나 이름을 갖게 되지만, 잿더미에서 엄마와 함께 죽은 채로 발견된다. 모녀의 시신을 발견한 기술자 장인이 자신의 죽은 딸을 떠올리며 아이를 AI로 재탄생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기술 도면을 이식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기억을 가장 소중한 곳에' 심어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귀머거리 아이의 설득을 통해 기술자 장인은 단절된 과거와 미래를 잇는 부품을 만들기로 결심하면서 연극은 끝을 맺는다. 귀머거리 아이는 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안내자 역할을 해주면서, 시간을 매개하는 역할을 했다.

공간과 그 안의 삶을 통해 기억하기

극단 52Hz는 인터뷰에서 “사라지는 공간에서 살아간 개개의 삶을 유의미하게 기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연극은 관객을 극의 내부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공간의 역사를 탐구하게끔 하는 힘이 있다. 배우들의 충실한 연기와 소소한 장치, 그리고 역사 그 자체인 공간이 어우러지면서 완성도를 높였다. 공연이 끝난 마지막 장소에 세운상가 장인의 인터뷰를 녹음한 테이프와 카세트플레이어를 비치해 관객들이 직접 음성 자료를 들을 수 있게 했고, 관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여분의 테이프도 마련해 놓았다. 또한 세운상가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이벤트도 사전에 공지해 관객을 자연스럽게 공간으로 스며들도록 했다. 섬세한 배려와 공간에 대한 애정을 알 수 있는 작업이었다.

어찌해야 할지 헤아릴 시간도 없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사람들의 그림자뿐이다. 그림자는 기억을 말할 수도 보여줄 수도 없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잠시 드러내고 다시 또 다른 어둠을 쫓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건설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잃어가는 기억의 박물관이 아닐까. 기억을 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시공을 넘나들 수 있다. 시공을 잇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기록이 될 것이다. 서치라이트 미래도시: 입정동편 <플랫폼SW3-123>은 기억의 박물관이자, 미래에 우리들이 먼저 읽게 된 편지이기도 하다.

글 박상미_주로 예술기획, 예술행정, 예술에 대한 글쓰기를 하고 있다. 올해는 현대연희극 공연 기획과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축제 프로그램으로 활동하고 있다. papermoonfly@naver.com
사진 제공 극단 52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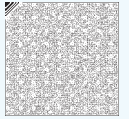
춤+여기

새로움과 장애물을 찾는 여정, 모험의 길을 찾아서

김지호



©Kenn. 김병구



Q 당신은 누구입니까?

와, 정말 신기하네요. 제 컴퓨터 모니터에도 “나는 누구입니까?”라는 글귀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질문을 대하게 되는데, 매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어요.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없을 만큼 과거와 현재, 미래의 제가 다르고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죠.(웃음)

Q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공덕역 앞에 있는 작은 공원이예요.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발견하게 됐는데, 꼭 한 번 다시 파쿠르(Parkour)를 해보고 싶었던 공간이라 선택하게 됐어요. 파쿠르는 불어로 ‘길’ ‘코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자어로 풀이하면 ‘도(道)’와 같은 의미입니다. 단어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파쿠르는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개척하는 움직임의 예술입니다.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임과 공간이 이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파쿠르 수련자들은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것을 즐겨워해요. 그런데 모든 공간이 파쿠르에 적합한 것은 아니예요. 편한 길은 자극이나 성장 지점이 없어서 변화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모험의 길이듯이, 모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장애물이 필요해요.

Q 이곳에서 춤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처음 파쿠르를 연습할 때엔 저의 목적과 이상향을 정해 두고 그에 걸맞은 공간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온전히 즐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정해 두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네요. 파쿠르를 하는 사람들이 “그 장소가 나를 부른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이 장소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파쿠르를 하기 전까지 그 공간과 친밀해지는 작업을 많이 해요. 머릿속에 도전해 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도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유사한 동작부터 시도해 보거나 맨땅 수준의 안전한 곳에서 연습해 보는 거죠. 그러다가 확신이 생기면 도전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동작을 ‘플로우’라고 하는데, 하나의 플로우가 나오기까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하고 계획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을 ‘파쿠르 비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파쿠르 비전을 기록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무용이론가이자 신체동작표기법의 개발자인 라반(Laban)의 움직임 언어를 찾아보면서, 그 언어를 파쿠르에 적용해 우리만의 언어 체계를 고안해 보려 해요. 시간 안에서 사라지는 파쿠르의 움직임을 언어로 기록하며 남기는 거죠. 아직도 해야 할 게 너무 많네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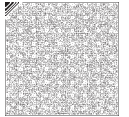
취재·정리 김연임. 웹진 [춤:in] 편집장

아티스트 소개 파쿠르 제너레이션즈 코리아 김지호 대표는 한국 파쿠르 1세대이자 전 세계 27명뿐인 국제 공인 마스터 코치다. 현재 그는 대안교육 기관들과 협력해 어린이 및 청소년 파쿠르 교육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지원사업으로 레이싱드론과 파쿠르의 포스트휴머니즘적 거리예술 작업, 그리고 대한체조협회 파쿠르 위원장으로 스포츠 파쿠르 종목 개발과 선수 육성에 힘쓰고 있다.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춤: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FAC 축제 | 예술교육 | 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62



Thu	Fri	Sat	Sun
4 ● 뮤지컬 <귀환>(~7.12) ● 2020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The Telephone&The Medium>(~6.7) ● 2020 세월호: 극장들 <시간 밖으로>(~6.7)	5 ● 연극 <나르는 원더우먼> ● 무용 <청년실신>(~6.6) ● 국립무용단 <제의>(~6.7) ● 연극 <공주(公主)들 2020>(~6.14) ● 연극 <팜(Farm)>(~6.14) ● 연극 <밤이면 나는 우주로 간다>(~6.20) ● 연극 <고기잡이 배>(~6.28)	6	7 ● 전시 <나요: 풍경의 위로>(~6.7) ● 전시 <조규훈: 그 소녀>(~6.7)
11 ● 창작악단 99회 정기공연 <비주비즈(非主Beads)> ● 2020 러시아워 콘서트3-이날치 '수궁가' with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 뮤지컬 <모차르트!>(~8.9)	12 ● 전시 <Nature, Conversation (자연, 그리고 우리가 이어갈 대화)>(~6.12) ● 2020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체질오페라 <남몰래 흘리는 눈물>(~6.14)	13 ● 아마도 이자람밴드 콘서트(~6.14)	14 ●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음악회 <베토벤 장엄미사> ● 전시 <모두의 소장품>(~6.14) ● 연극 <영지>(~6.14)
18 ● 2020 연극 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나>(~6.20) ● 연극 <위대한 놀이>(~6.28)	19	20 ● 2020 예술의전당 토요콘서트 ● 전시 <통의 7-33>(~6.20) ● 전시 <윤형근 1989-1999>(~6.20) ●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8.23)	21 ● 제58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귀국전 <역사가 우리를 망쳐 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6.21) ● 전시 <조선, 역병에 맞서다>(~6.21) ● 전시 <박영숙: 행복 담은 말>(~6.21) ● 전시 <보통의 거짓말>(~6.21)
25 ● 청년예술청 개관 프로젝트(~7.5) ● <황병기 가야금 작품세계 II> ● 서울시합창단 제123회 특별연주회 <쁘티 콘서트>(~6.26) ● 국립오페라단 <마농>(~6.28)	26 ●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청춘, 청어람>(~6.27) ● 전시 <My dear 피노키오>(~10.4)	27 ● 2020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사업 99°C(시각예술) 선정작 전명은 개인전 <글라이더(Glider)>(~6.27)	28 ● 전시 <맑은 세계>(~6.28) ● 전시 <사대문 안의 학교들>(~6.28) ● 전시 <잃어버린 영혼: 요안나 콘세이요>(~6.28)

※이번 호에 실린 공연·행사 등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뮤지컬 <귀환>

지난해 초연에 이어 6·25전쟁 70주년인 올해 재연이 확정된 육군 창작 뮤지컬이다. 6·25전쟁 당시 목숨을 바쳤지만 지금도 수습되지 못한 분들의 유해를 찾아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를 다뤘다. 군 복무 중인 장병 30명도 무대에 함께한다.

일시 6월 4일(목)~7월 12일(일)
화·수·금 오후 3시·8시 | 목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30분 | 일 오후 3시(월 공연 없음)
장소 우리금융아트홀
관람료 VIP석 9만 8천 원, R석 8만 8천 원, S석 7만 7천 원,
A석 5만 5천 원
문의 02-541-7110



연극 <공주(孔主)들 2020>

극단 신세계의 2020년 첫 번째 공연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사업 선정 '여성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연극 <공주(孔主)들 2020>은 구멍 공(孔), 주인 주(主), 구멍의 주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1900년대부터 2020년 오늘날까지 불편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대한민국 성매매 100년 역사를 주인공 '김공주'를 통해 읽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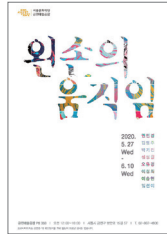
일시 6월 5일(금)~14일(일)
화·금 오후 8시 | 주말 오후 3시(월 공연 없음)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70-8118-7237



무용 <청년실신>

돈 많이 버는 직업,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곧 꿈인 청년실신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을 움직임으로 시각화해 내몰리는 청년들의 치열한 삶을 표현하는 작품으로 발레를 기반으로 현대 무용, 비보이를 넘나드는 안무 구성과 연극적인 연출이 특징이다.

일시 6월 5일(금)~6일(토)
금 오후 8시 | 토 오후 7시
장소 성수아트홀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507-1458-8810



전시 <원손의 움직임>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11기 입주작가 임선이 작가와 동료 작가 7인(권인경·김명주·박기진·성정원·오유경·이성희·이승현)이 모여 새로운 작업을 선보인다. 전시를 기획한 임선이 작가는 “오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오른손의 수고로움을 잠시 묻어두고 왼손이 갖는 어설피지만 유기적이고 익숙하지만 낯선 중얼거림과 같은 전시”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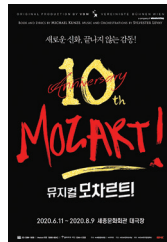
일시 ~6월 10일(수) 오후 12시~6시(매주 일 휴관)
장소 금천예술공장 PS333(금천예술공장 3층 전시실)
관람료 무료(사전 예약)
문의 02-807-4800



산울림 고전극장 <모지리들>

젊고 열정 있는 예술가들의 참신한 언어로 고전작품을 무대에 표현하고 있는 산울림 고전극장의 올해 첫 프로그램이다. 기드 포파상의 단편소설 <봄> <달빛> <두 친구> 등을 엮어 인간과 삶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색다른 무대언어로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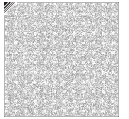
일시 6월 10일(수)~21일(일)
월·수·목·금 오후 8시 | 주말 오후 3시(화 공연 없음)
장소 산울림 소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334-5915



뮤지컬 <모차르트!>

음악적으로 누구보다 빛난 청년기부터 쓸쓸한 죽음에 이르는 모차르트의 삶을 무대로 옮겼다. 뮤지컬 <모차르트!>는 199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초연한 작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0년 처음 막을 올렸다. 올해 공연은 한국 초연 10주년을 기념해 이 작품으로 뮤지컬에 데뷔한 김준수를 비롯한 뮤지컬 시장을 이끄는 스타 배우 여럿이 출연한다.

일시 6월 11일(목)~8월 9일(일)
화·목 오후 7시 | 수·금 오후 3시·8시 | 토 오후 2시·7시
일 오후 3시(월 공연 없음)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화·수·목 VIP석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7만 원
금·토·일 VIP석 15만 원, R석 13만 원, S석 10만 원, A석 8만 원
문의 02-399-1000



체질 오페라 <남몰래 흘리는 눈물>

2020년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에서 (주)코리 아아르츠그룹이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을 각 색한 체질 오페라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공연한다. 체질과 기질이라는 선천적 요소를 기반으로 작품 속 인물들을 분석해 한결 쉽게 오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일시 6월 12일(금)~14일(일)
금 오후 8시 | 토 오후 2시·6시 | 일 오후 3시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관람료 R석 7만 원, S석 5만 원
문의 02-557-5587



연극 <영지>

2018년 국립극단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를 통해 개발, 2019년 5월 초연한 <영지>는 국립극단 청소년극 중 처음으로 10대 초반의 이야기를 다루어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어딘가 이상하고 괴짜 같은 '영지'는 어른들의 경계 대상 1순위이지만, 영지를 따라가다 보면 청소년 관객은 물론 성인 관객 또한 자신이 잊고 있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일시 ~6월 14일(일)
월·수·목·금 오후 7시 30분
주말 및 공휴일 오후 3시(화 공연 없음)
장소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1644-2003



연극 <유리 가가린>

유리 가가린은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다. 극단 떼아뜨르 봄날은 유리 가가린을 중심으로 한 유니버설 음악극을 준비했다. 복고풍의 독특한 음악극으로 5명의 배우가 1인 다역으로 재치 있게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장기창작지원 사업 선정작이다.

일시 6월 17일(수)~21일(일)
수·금 오후 8시 | 주말 오후 4시
장소 선돌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332-5564



2020 연극 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나>

전태일 정신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연극을 만들자는 취지로 2월 1일 출범한 '2020 연극전태일 추진위원회'가 올린 연극이다. 각각의 장면에 나오는 전태일은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장면과 연결돼 있다. 어린 시다 역할은 구로 지역의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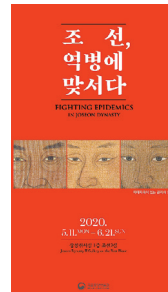
일시 6월 18일(목)~20일(토)
목·금 오후 7시 30분 | 토 오후 3시
장소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597-5701



전시 <윤형근 1989-1999>

한국 단색화의 흐름을 선도한 거목이자, 세계적인 작가로 우뚝 선 윤형근 화백의 회고전이다. 이번 전시에는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말에 제작된 대작 위주의 회화 및 한지 작업 등 기존에 소개되지 않은 작품 20여 점이 심도 있게 조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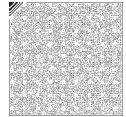
일시 ~6월 20일(토)
화~토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일·월 휴관)
장소 PKM 갤러리
관람료 3천 원
문의 02-734-9467



전시 <조선, 역병에 맞서다>

조선 시대 사람들은 전염병의 공포에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지 조명하는 전시가 열렸다. 이재의 시, 전염병으로 죽은 아이들의 묘지명, 두창의 흉터가 남은 초상화, 역병 대응을 위한 각종 의서(醫書) 등이 전시된다.

일시 ~6월 21일(일)
월·화·목·금·일·공휴일 오전 10시~오후 6시
수·토 오전 10시~오후 9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 1층 조선2실
관람료 무료
문의 02-2077-9000



연극 <아카시아와, 아카시아를 삼키는 것>

<아카시아와, 아카시아를 삼키는 것>은 김지나를 주축으로 하는 창작 단체인 이언시 스튜디오의 첫 번째 남산예술센터 시즌 프로그램 참여작이다. 이 작품은 1980년대부터 2019년까지 우리 사회가 겪은 아픈 기억의 파편들을 꺼낸다. 개인의 '말'을 통해서 동시대의 어떠한 일이, 특별한 사람들만 겪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불편한 시대를 겪어가고 있음을 공유하고자 한다.

일시 6월 24일(수)~7월 5일(일)
화~금 오후 7시 30분 | 주말 오후 3시(월 공연 없음)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758-2150



판소리 <이방인의 노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마르케스가 1995년 발표한 단편소설 <대통령 각하, 즐거운 여행을!(Bon Voyage, Mr. President!)>를 바탕으로 이자람이 재창작한 판소리다. 병을 고치기 위해 제네바를 찾은 전직 대통령이 근근이 살아가는 오메로-라사라 부부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일시 6월 24일(수)~7월 5일(일)
수~금 오후 8시 | 주말 오후 5시(월·화 공연 없음)
장소 더아트센터
관람료 전석 6만 6천 원
문의 02-790-6792~3



국악 <황병기 가야금 작품세계 II>

가야금 명인이자 혁신적인 시도로 국악의 지평을 넓힌 예술가 황병기 선생의 작품을 '황병기작품보존회'가 동시대의 음악으로 연주한다. 가야금을 위한 최초의 현대 독주곡으로 불리는 <쑤>(1962)를 비롯해 <석류집> <비단길> <하마단> <침향무> 등이 연주된다.

일시 6월 2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관람료 전석 1만 원
문의 02-583-4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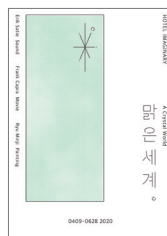


2020 유망예술지원사업 99°C(시각예술) 선정작

전명은 개인전 <글라이더(Glider)>

사진작가 전명은의 개인전 <글라이더(Glider)>는 체조 기구와 교감하며 운동의 단계로 몰입해 들어가는 기계체조 선수의 긴장감 있는 순간을 보여준다.

일시 ~6월 27일(토)
화~토 오전 10시~오후 7시(매주 일·월 휴관)
장소 갤러리2
관람료 무료
문의 02-3448-2112, www.gallery2.co.kr



전시 <맑은 세계>

성북동 언덕길에 위치한 호텔 이매지너리에서 기획한 세 번째 전시로, 판타지(fantasy)라는 단어를 바탕으로 류민지의 회화 작품, 에릭 사티의 음반, 프랭크 카프라의 영화가 함께한다. 이 전시는 기획자와 소수의 관객이 함께 소통한다는 취지에서 회차당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사전예약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시 ~6월 28일(일)
오전 11시~오후 11시(매주 월 휴관)
장소 호텔 이매지너리
입장료 2만 4천 원
문의 010-7287-1717



서울시합창단 제123회 특별연주회 <쁘티 콘서트>

서울시합창단 단원들이 솔리스트적인 색다르고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 <쁘티 콘서트>는 선곡부터 무대 구성까지 연주자들이 직접 만드는 특별한 음악회로, 이틀간 다른 주제로 진행된다.

일시 6월 25일(목)~26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세종체임버홀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399-1000

2020 NAMSAN
ARTS
CENTER

이연시
스튜디오

A Mournful Wind Blows Through the Comm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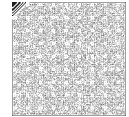
아카시아와, 아카시아를 삼키는 것

류제승 이은주
황순미 김진복
조형래 정양아
최귀웅 우혜민
정명균 김청순
조 은 장석환
강서희 이 연
도예준 박채린

작·연출 김지나

6.24.-7.5.

평일 19:30 | 주말 15:00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agazin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5월호 독자 의견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감하지는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뽑아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지난해 독자엽서가 당첨돼서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도서관 가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볼 수 있어 좋네요.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테마토크 '문화예술 패러다임의 변화'
공연장도 전시장도 가기 어려운데 이렇게 예술로 "집콕"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네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고 누릴 수 있게, 서울문화재단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서울]이 문화 향유의 가교가 되길 기대합니다.

*본지는 [문화+서울] 웹진(www.sfac.or.kr/magazine)으로도 발행하며 종이 문지는 독자 대표회에서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편집 후기

다음 달 테마는 뭐가 좋을까.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찾아보겠습니다.

전주호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청년 예술' 특집은 어떨까요.

김태희 객원 편집위원

지난 한 달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아림 객원 기자

어딘가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전은정 객원 기자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대חק로 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 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예술가의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 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하자센터, 아르코·대חק로예술극장,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독자 엽서

최은영(서울 강북구)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지난해 독자엽서가 당첨돼서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도서관 가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볼 수 있어 좋네요.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테마토크 '문화예술 패러다임의 변화'
공연장도 전시장도 가기 어려운데 이렇게 예술로 "집콕"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네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고 누릴 수 있게, 서울문화재단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서울]이 문화 향유의 가교가 되길 기대합니다.

1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문화시설 이용 7대 수칙

2

**발열 등
증상유무를
확인합니다.**



3

**참석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4

**손소독제를
사용합니다.**



5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둡니다.**



6

**기침예절을
지킵니다.**



7

**이용중 통화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